백두-한나

주체112(2023) 9
http://www.paekdu-hanna.com

재중조선인총련합회
旅中朝鲜人总联合会

백두 - 한나
주체112(2023) NO.343



신양군영예군인고려약공장



인재력량이 든든히 준비된데 기초하여 공장에서는 고려약의 엑스화를 실현하기 위한 진공농축기와 순환식추출기제작을 비롯한 설비현대화와 함께 상표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공장에서 키워낸 인재들에게 대담하게 맡기고 그들의 창조적열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장에서는 고려약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적극 내밀어 알약생산공정의 마이크로파에 의한 건조 및 멸균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고려약의 위생안전성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게 되였으며 공장자체의 힘으로 GMP 품질관리체계의 정보화를 실현하는 성과도 이룩하게 되였다.

공장에서는 현재 여러가지 진귀한 약초들을 가지고 GMP 인증을 받은 77가지에 달하는 고려약들을 마음먹은대로 생산하고있다고 한다.

공장에서는 자기 고장의 흔한 천연약재들을 가지고 물질대사질병치료약인 《인삼황경피당뇨병교갑약》과 《류마치스관절염치료약》을 비롯하여 인민들이 선호하는 의약품생산에서 많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개성에 가면 인삼이, 북청에 가면 사과가 특산물로 떠오르는것처럼 신양군 하면 효능높은 고려약이 특산물로 떠오르게 하자는것이 신양군영예군인고려약공장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으로 하나하나의 의약품마다에 자기들의 정성과 심혈을 쏟아붓고있다.

차례 Contents

혁명활동소식
geminghuodongxiaoxi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백두 - 한나
PAEKDU·HANNA

조국소식
CHAOXIANXIAOXI

우리민족한마당
woominzudaitang

중국소식
zhongguoxiaoxi

국제소식
guojixiaoxi

상식
changshi

앞표지:

우리의
공화국기



공화국창건 75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 성대히 거행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자기의 국호에 인민을 아로새기며 탄생하여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과 자주, 자립, 자위의 불변의 기치높이 부국강병의 활로를 열고 새로운 승리와 번영의 상승궤도를 따라 노도쳐가는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광스러운 력사에 75돐기의 년륜이 아로새겨졌다.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령도따라 일심일체로 굳게 뭉친 무궁무진한 힘으로 세계유일무이한 정치사상강국, 최강의 군사강국의 존엄과 명예를 세기의 단상에 우뚝 떠올린 영웅적인민의 위대한 투쟁과 승리, 창조와 변혁의 전기에는 한손에는 총을, 다른 한손에는 마치와 낫과 붓을 들고 조국의 부강번영을 억척같이 받들어온 주체적민방위무력의 전투적행로도 빛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이 9 월 8 일 수도 평양의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거행되였다.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서 위훈떨쳐온 민방위무력의 열병대오가 도도히 굽이치게 될 광장은 위대한 강국의 탄생일을 뜻깊게 맞이하는 관중들의 감격과 환희로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수도의 밤하늘을 활무대로 항공체육명수들이 특색있는 집체강하기교를 펼치고 람홍색광채를 뿌리는 우리의 국기를 거폭으로 휘날리며 날아내려 경축열기를 더해주었다.

세기의 창공에 눈부시게 빛발치는 내 조국의 력사를 수놓는듯 비행기편대가 수자 《75》를 형상한 대형을 짓고 축포탄을 쏘아올리며 축하비행을 진행하였다.

종합군악대의 군악례식이 있었다.

진리로 뭉쳐진 억센 뜻으로 온 세계를 앞서나갈 인민의 의지를 담은 장중한 국가를 높이 울려 자주독립국가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리였던 그날의 환희를 안고 군악대원들이 장구한 세월의 언덕을 넘어 기적의 나라, 영웅의 나라로 위용떨치는 주체조선의 건국력사를 약동하는 선률과 기백있는 률동에 담아 펼치고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능란하고 재치있는 무기교를 보여주었다.

위대한 강국의 힘,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한길

을 따라 급속도로 비약하며 눈부신 미래에로 달려나가는 강용한 인민의 기상을 안고 민방위무력 열병종대들이 광장으로 진입하였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국가방위력의 중추인 인민군대의 믿음직한 익측부대, 후방보위, 향토보위의 기본력량으로 장성강화되여 조국수호와 사회주의건설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왔으며 전인민적, 전국가적방위체계를 튼튼히 다지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당의 혁명무장력, 공화국정권의 수호대인 우리의 민방위



무력.

평화시기에는 일터마다에서 창조와 건설의 우렁찬 동음을 울리고 일단 유사시에는 근로인민모두가 무장을 잡고 무자비한 징벌의 총성, 원쑤격멸의 무서운 폭음을 높이 울려갈 억척의 의지가 열병종대들에 나래쳤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공화국창건 75 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에 참석하시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탁월한 국가건설사상과 세련된 령도력, 불철주야의 헌신으로 공화국의 국력과 국위를 민족사상 최고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수수천년 갈망하던 강국



의 숙원을 현실로 꽃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병대원들과 경축행사참가자들의 열광의 환호에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를 위시하



여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이 주석단에 등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존경하는 자제분을 모시고 리병철원수, 박정천원수와 군부의 지휘관들이 주석단특별석에 자리잡았다.

김정은동지께와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에게 귀여운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였다.

당과 정부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여온 로간부들이 주석단에 자리잡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국무원 부총리 류국중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아까데미야협주단 성원들과 우리 나라 주재 중국과 로씨야의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 경축행사참가자들이 초대석에 자리잡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게양식이 엄숙히 거행되였다.

사랑하는 조국의 영광넘친 75 년사를 뜻깊게 경축하는 인민의 환희가 차넘치는 광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받쳐든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국기호위대의 호위를 받으며 들어섰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울리는 속에 정의와 필승불패의 상징으로 빛나는 성스러운 우리의 국기가 서서히 게양되였다.

존엄높은 우리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에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인민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 인민의 지향과 힘으로 승승장구하는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이 세상 다할 때까지 열렬히 사랑하고 무궁토록 빛내여갈 천만심장의 불변의 의지를 활화로 분출시키며 축포가 터져올라 열병광장을 감격과 격정으로 끓게 하였다.

《빛나는 조국》의 노래주악과 함께 21 발의 례포가 발사되였다.

이어 열병식준비검열이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오일정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 준비검열을 받기 위해 정렬한 열병부대들을 점검하였다.

김정은동지께 오일정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이 준비되였음을 정중히 보고올리였다.

인민군대와 함께 공화국무력의 2 대기둥이 되여 전민항전의 철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해나가는 강위력한 전투대오인 민방위무력의 장엄한 열병행진이 시작되였다.

열병대오의 선두에는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를 제일 가까이에서 보위하는 친위전사들답게 인민사수전의 최전구마다에서 별동대의 위력을 남김없이 떨친 우리 당의 강력한 핵심력량인 수도당원사단종대가 서있었다.

평양시로농적위군종대에 이어 조국의 서부국경관문을 억척같이 지켜선 평안북도 로농적위군종대와 수도 평양을 옹위하는 위성도인 평안남도 로농적위군종대가 붉은기를 나붓기며 위엄있게 나아갔다.

알곡생산목표점령을 인민경제발전 12 개중요고지의 첫번째 고지로 내세운 당중앙의 의도를 제일선에서 받들어나가는 농업전선의 전초병대오인 황해북도, 황해남도 로농적위군종대들의 발걸음도 드높았다.

풍파사나운 력사속에서 우리 혁명위업이 어떻게 지켜지고 우리 당의 사상과 로선이 어떻게 보위되였는가를 웅변하며 자력갱생, 간고분투로 조국의 전진비약의 봉화가 되고 초석이 되였던 시대정신창조자들의 남다른 자부를 안고 자강도, 강원도 로농적위군종대가 힘차게 용진해갔다.

나날이 강대해지는 우리 국가의 모습을 무적의 총대에 비껴안고 굴지의 대공업기지들을 지켜선 함경북도, 함경남도 로농적위군종대와 혁명의 성지, 백두대지를 옹위하는 억센 성벽인 량강도 로농적위군종대, 각 직할시 로농적위군종대들에도 무적필승의 기상이 약동하였다.

주석단 성원들은 위대한 강국의 수호자된 긍지와 자부, 신심과 배짱을 안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의 두 전선에서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가며 조국통일대전의 시각이 온다면 일당백으로 준비된 로농적위군의 영웅적기상과 본때로 승전사를 아로새길 불같은 일념으로 지축을 울리는 열병종대들에 전투적인사를 보내였다.

현대전의 특성과 우리 나라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로농적위군의 군사기술적위력을 인민군대의 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심오한 군사리론적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로농적위군강화의 새 전기를 펼쳐가는 위대한 당중앙에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열병대원들은 목청껏 《만세!》의 함성을 터쳐올렸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긍지높은 력사와 전통을 세대와 세기를 이어 빛내여나가며 주체교육의 최고전당, 혁명인재육성의 본보기대학으로 이름떨치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로농적위군종대가 당의 부름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돌진해나가는 맹장부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열병광장을 활보해갔다.

자립경제의 쌍기둥인 금속공업, 화학공업부문을 지켜선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로농적위군종대를 비롯하여 경제건설의 중요고지, 당 제 8 차대회 결정관철의 주타격방향에서 련대적혁신과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중요공업부문의 로농적위군종대들이 련이어 광장으로 들어섰다.

일터에선 소문난 혁신자, 다수확농민이 되고 총을 잡으면 백발백중의 명사수, 명포수가 되여 로동과 국방에 이바지해나가고있는 김정숙평양방직공장, 평원군 원화농장 로농적위군종대를 비롯한 열병종대들이 우리 당의 주체적인 민방위무력건설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보여주며 희열에 넘쳐 주석단앞을 행진해갔다.

과학기술로 공화국의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견인해나가고있는 과학자들의 대부대 국가과학원 로농적위군종대에 이어 문화성, 체육성, 보건성 로농적위군종대에도 지혜와 땀과 열정을 다 바쳐 사회주의문화의 개화기를 열어나갈 애국의 일념이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항일의 소년선봉대, 전화의 소년빨찌산의 고귀한 넋을 간직한 붉은 청년근위대종대가 정든 교정과 사랑하는 고향산천을 굳건히 지켜싸울 철석의 맹세드높이 기세충천하여 전진해갔다.

주석단 성원들은 행성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전민무장화, 전민방위체계의 거대한 생활력과 위력한 실체를 세계앞에 과시하며 용진해가는 열병대원들을 뜨겁게 격려해주었다.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천하를 휘여잡으시는 희세의 령장,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을 한품에 안으시고 승리와 번영의 활로를 여시며 조국의 창창한 앞날을 펼쳐가시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만을 세월의 끝까지 받들어갈 결의를 담아 열병대원들이 터쳐올리는 신념과 의지의 함성이 광장을 진감하였다.

우리 당의 자위적군사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체 인민이 총검을 틀어잡고 전국이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된 강대국의 위상을 힘있게 떨치며 로농적위군의 기계화종대들이 진군을 개시하였다.

신속한 기동력을 갖춘 모터찌클종대에 이어 사회주의농촌에서 기계화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는 뜨락또르들이 견인하는 반땅크미싸일종대와 자기 마을, 자기 일터의 상공마다에 철벽의 진을 친 고사포종대, 로농적위군의 전투능력을 과시하는 위장방사포병종대들이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철추를 안길 만반의 림전태세를 갖추고 광장을 누벼나갔다.

우리 혁명무력의 강대함은 천하무적의 정규군과 함께 현대전의 그 어떤 군사작전과 전투도 자립적으로 치를수 있는 위력한 민방위무력을 가진데 있음을 세계앞에 선언하며 기계화종대들이 도도히 광장을 굽이쳐갔다.

그 어떤 적대세력도 감히 넘볼수 없는 최강의 국가방위력을 억척같이 다지시여 진정한 평화와 후손만대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의 만년담보를 마련해주신 절세의 애국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전체 참가자들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열병식이 끝나자 경축의 축포와 고무풍선들이 하늘을 뒤덮고 열화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열병광장을 진감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중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경축 민방위무력열병식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사회주의건설과 국가방위력강화에서 새로운 기적과 승리를 떨쳐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기상과 불굴의 투쟁기세를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력사적사변으로 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다. (끝)



조로관계발전의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한 사변적계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뿌찐동지와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13일 원동지역의 아무르주에 위치하고있는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력사적인 상봉을 하시였다.

세대와 세기를 이어오며 력사의 검증속에서 다져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는 **김정은**동지와 뿌찐동지의 두터운 친분과 각별한 우의속에 불패의 전우관계, 백년대계의 전략적관계로 더욱더 승화발전되고있다.

훌륭한 력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조로친선협조관계의 새로운 확대발전을 위하여 로씨야련방을 공식친선방문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맞이하게 될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은 뜨거운 환영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타신 전용렬차는 현지시간으로 13시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렬차에서 내리시자 로씨야련방무력 륙해공군명예위병대가 최대의 경의를 담아 정중히 영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알렉싼드르 꼬즐로브 로씨야자연부원생태학상을 비롯한 영접간부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의 접견을 위하여 상봉장소로 향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 최선희동지, 조선인민군 원수들인 리병철동지, 박정천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상 강순남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오수용동지, 박태성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 군부의 수행간부들과 수행성원들이 동행하였다.

조로수뇌분들이 상봉하시게 될 운반로케트조립 및 시험종합체건물앞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와 로씨야련방 국기가 나붓기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도착하시자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가 따뜻이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정깊은 인사를 나누시였다.

뿌찐대통령은 **김정은**동지께서 로조관계발전에서 뜻깊고 중대한 시기에 로씨야련방을 또다시 찾아주신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이 국가사업전반을 령도하는 바쁜 속에서도 따뜻이 초청해주고 맞이해주는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면서 이번 상봉이 매우 특수하고 특색있는 환경속에서 진행되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로씨야련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뿌찐동지와 함께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을 참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로씨야국영회사 《로스꼬스모스》 총사장 유리 보리쏘브동지와 우주지상하부구조운영쎈터 소장 니꼴라이 네스쩨츄크동지가 안내해드리였다.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은 각이한 용도의 우주기구 및 위성발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우주개발분야에서의 괄목할만한 장성에 기여하고있으며 아무르주와 원동지역의 사회경제적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는 로씨야의 종합적인 우주발사기지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뿌찐대통령과 함께 운반로케트조립 및 시험종합체를 돌아보시면서 《쏘유즈-2》, 《안가라》를 비롯한 운반로케트들의 구체적인 기술적특성과 조립 및 발사과정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였다.

또한 운반로케트 《쏘유즈-2》발사종합체와 운반로케트 《안가라》발사종합체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운영 및 건설실태와 로씨야가 우주산업분야에서 창조한 성과와 경험, 앞으로의 발전전망에 대하여 청취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뿌찐동지의 전략적인 우주개발구상에 따라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이 훌륭히 일떠서 귀중한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면서 우주에로의 길을 개척한 강대한 로씨야의 숭고한 정신과 전통이 빛나게 계승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뿌찐동지가 중요한 우주발사기지에 대한 성의있는 참관을 직접 조직하고 함께 동행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뿌찐대통령은 자기의 전용승용차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자리를 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워스또츠느이우주발사장참관을 기념하여 방문록에 《첫 우주정복자들을 낳은 로씨야의 영광은 불멸할것이다. **김정은** 2023.9.13》이라는 뜻깊은 친필을 남기시였다. (끝)

주체적해군무력강화의 일대 사변

새로 건조한 잠수함 진수식 성대히 진행



백전백승 조선로동당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의 건국력사에 일찌기 가져보지 못하였던 세계적인 막강한 국방력을 떠올리며 위대한 부흥강국의 새시대를 펼쳐가는 영광스러운 려정우에 주체적해군무력의 급속한 발전상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새로운 위력적실체가 출현하였다.

우리 당의 혁명위업에 무한히 충직한 영웅적인 군수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식의 전술핵공격잠수함을 건조하여 창건 75돐을 맞는 어머니조국에 선물로 드리였다.

첫 수중핵공격함선의 장엄한 탄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무력강화의 새로운 장의 서막을 알리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국가핵억제력을 질량적으로, 비약적으로 더욱 확대강화해나가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드팀없는 의지가 더욱 선명하게 시위된 잠수함 진수식은 9월 6일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리병철원수, 박정천원수, 김덕훈 내각총리, 김명식해군대장 등 당과 정부, 군부 지도간부들의 참석하에 해군 동해함대 지휘관, 해병들, 봉대조선소의 전체 로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의 들끓는 환희와 감격속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진수식장에는 자립적국방공업, 혁명공업의 거창한 발전을 이끌어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힘인 핵무력을 더욱 장성강화하고 국가의 불가역적지위를 굳건히 다져 민족의 세기적숙원을 성취해준 위대한 어머니당 조선로동당에 대한 열화같은 감사와 흠모의 정이 뜨겁게 흐르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진수식장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천하를 휘여잡으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 부국강병을 위한 불철주야의 헌신으로 위대한 승리와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시는 강철의 령장, 탁월한 인민의 령도자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는 속에 조선인민군 해군 명예위병들이 장장 70여성상 가없이 넓은 조국의 바다를 지켜 싸워온 해군장병들의 고귀한 넋이 슴배여있고 조선의 영원한 존엄과 필승불패의 상징으로 빛나는 람홍색공화국기를 서서히 게양하였다.

이어 조선인민군 해군에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이관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을 리병철원수가 전달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라 첫 전술핵공격잠수함 제841호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관하 해당 수중함전대에 이관되고 《김군옥영웅》호로 명명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의 이관증서를 해군 동해함대관하 해당 수중함전대장에게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진수식을 축하하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진수하게 되는 제841호 《김군옥영웅》함은 우리 해군무력의 핵심적인 수중공격수단의 하나로서 자기의 전투적사명을 수행하게 될것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로동당과 그의 혁명공업전사들이 숭고한 리상과 무비의 창조투쟁으로 출산한 선진해양강국건설대업의 첫 산아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중앙은 해군무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실질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 함선공업의 가일층 도약을 결심하였으며 함선공업의 중흥은 더는 물러설 길이 없고 반

드시 실현시켜야 할 최중대과제라고 하시면서 앞으로도 련속적으로 수중 및 수상전력의 현대성을 계속 제고해나가며 우리 해군의 핵무장화를 계속 추진해나갈 전략전술적구상을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축하연설을 마치시자 열화같이 분출하는 전체 참가자들의 충성의 열정이 《만세!》의 함성으로 터져오르며 진수식장을 진감하였다.

봉대잠수함공장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은 우리식 잠수함공업의 발전방향과 신형잠수함개발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며 해군무력강화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시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진수식을 기념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 해군의 주요지휘관들, 잠수함공장 책임일군들과 함께 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리병철원수는 공장 지배인으로부터 진수준비가 끝났음을 보고받고 진수를 명령하였다.

진수신호가 내리자 해군무력강화에서 사변적 의의를 가지는 력사의 순간을 체감하는 전체 참가자들의 감격과 환희를 담아 꽃보라가 터져오르고 고무풍선들이 날아오르는 속에 새로 건조한 잠수함이 바다우에 떠올랐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적국방건설정책을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군수로동계급의 충성과 애국의 무진한 힘과 열정이 있어 공화국창건 75돐을 앞두고 우리 국가의 위상을 다시금 과시할수 있게 되였다고 거듭 평가하시고 공장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새 세기 함선공업발전에 이바지하는 진짜배기애국자, 령해방위의 병기창을 지켜선 일선전투원의 값높은 영예를 계속 빛내여나가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9월 7일 시험항해를 위한 출항준비를 하고있는 전술핵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돌아보시였다.

출항준비를 하고있는 부두에서는 전술핵공격잠수함을 인도받은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가 공화국무력의 최고사령관을 영접하는 의식을 진행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의 영예의 군기와 명예위병대를 사열하시였다.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해군사령관 김명식해군대장과 정치위원 김창국해군중장, 조선인민군 해군 동서해함대 지휘관들, 수중함전대의 군정지휘관들이 경모의 정을 안고 맞이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옥영웅》함을 돌아보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함의 무장체계와 잠항작전능력을 료해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해군의 핵무장화는 더는 미룰수도, 늦출수도 없는 절박한 시대적과제로, 혁명무력건설의 중핵적요구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전술핵을 탑재한 수중 및 수상함선들을 해군에 인도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우리 해군이 자기의 전략적임무를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화국해군무력의 첫 세대 영웅지휘관이였던 김군옥영웅의 이름을 아로새긴 잠수함의 지휘관, 해병들답게 전세대의 위대한 해병정신을 굳건히 계승하여 정치사상적, 정신도덕적준비에서도 혁명전쟁준비완성에서도 해군의 본보기, 전군의 모범이 되며 영웅해군의 새로운 신화를 계속 앞장에서 창조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잠수함 전체 해병들과 함께 《김군옥영웅》함을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김군옥영웅》함의 전체 지휘관들과 해병들은 그 어떤 대적도 압승할 무적의 보검을 쥐여주시고 몸소 함에까지 오르시여 안전항해와 무훈을 기원해주시며 백전백승의 항로를 밝혀주신 위대한 령장의 끝없는 사랑과 믿음을 운명의 피줄기로 간직하고 바다의 결사대, 해군의 억센 주먹으로 용맹떨쳐갈 철석의 맹세를 다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앞두고 진행된 전술핵공격잠수함의 진수식은 위대한 **김정은**시대 주체적해군무력의 강화발전사와 국가핵무력건설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선진해양강국건설의 웅대한 목표에로의 장엄한 출발을 선언한 의의깊은 계기로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지게 될것이다. (끝)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주체조선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민족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조국의 전체 인민이 자력자강의 기치높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8 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을 위한 혁명적대진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 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습니다.

경사로운 공화국창건기념일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한마음을 담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념원을 꽃피우시여 자주의 강국, 불패의 사회주의국가로 우리 공화국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높이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은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이민위천의 나라,참다운 인민의 국가의 출현을 선언한 력사적사변이였으며 조국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참된 삶의 보금자리를 안겨준 민족사적경사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항일혁명의 불길속에서 마련하신 독창적인 인민정권건설로선을 구현하시여 주체 37(1948)년 9 월 9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반만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자기의 참다운 인민의 국가,진정한 조국을 가지게 되였으며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선은 존엄있는 자주독립국가로,주체의 나라로 솟아오르게되였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적승리와 두단계 사회혁명의 성과적수행,자주,자립,자위의 기둥을 억척으로 세우고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로 강화발전되여온 우리 공화국의 모든 승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일심단결을 불패의 강국건설의 천하지대본으로 내세우시고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시였으며 혁명앞에 가장 엄혹한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으며 사회주의조국의 국제적지위와 영향력을 비상히 높이시였습니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을 지니시고 전대미문의 험로역경을 강철의 신념과 초인간적인 의지로 헤쳐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속에 조국의 정치군사적위력은 백방으로 다져지고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세차

게 타올라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만년토대가 마련되였습니다.

비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시고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건국업적은 강성부흥하는 우리 조국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사회주의조국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전도양양한 나라로 온 누리에 빛을 뿌리고있습니다.

희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주체혁명의 새시대를 펼치신 주체 100 년대에 천리혜안의 예지로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건설하고 인민의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투쟁강령들을 제시하시고 애국애민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으시였으며 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전성기를 안아오시였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정책을 법화하는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시여 존엄높은 자주강국의 위상을 떨쳐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창건 75 돐과 전승 70 돐을 비롯한 주요계기들에 황홀한 경축열병식들과 주요정치행사들을 통하여 최악의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수령, 당,대중이 하나로 굳게 뭉쳐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위대한 우리 국가의 존엄과 불가항력적힘을 만천하에 과시하여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4 월과 7 월에도 세계최강의 핵병기인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화성포-18》형의 시험발사를 직접 지도하시여 우리 조국의 자주권과 국력, 민족의 자존심을 하늘에 올려놓는 또 하나의 민족사적사변을 안아오시였습니다.

사랑하는 인민을 자신의 피와 살점처럼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눈물겨운 헌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령도속에 우리 조국에서는 전지구적인 보건동란속에서도 너무도 짧은 기간에 방역안정을 회복하는 놀라운 현실이 펼쳐졌고 수도 평양과 련포지구를 비롯한 나라의 곳곳에 기념비적창조물들이 훌륭히 건설되여 조국의 모습이 새롭게 변모되였습니다.

나라의 식량문제해결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며 자연재해를 입은 포전들에 직승기와 경수송기들까지 동원시켜 즉시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허리를 치는 침수된 간석지논에까지 서슴없이 들어서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영상은 재중동포 우리 모두의 눈굽을 뜨겁게 적셔주고 있습니다.

되새겨볼수록 강국의 공민된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이 넘쳐나고 래일에 대한 신심과 락관으로 가슴뿌듯해지는 격동적인 사변들은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만고불멸의 대업적입니다.

우리들은 사회주의조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모든 행복과 창창한 미래가 있다는 철석의 신념을 뼈속깊이 새기고 재중조선인총련합회와 전체 재중조선인들을 원수님만을 일편단심 따르는 충성의 대오, 애국동포들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며 재중동포들속에서 동북 3 성지역의 항일혁명전적지들을 통한 혁명전통교양, 애국주의교양을 참신하게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 25 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서한을 높이 받들고 재중조선인총련합회활동에 동포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동포조직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투쟁강령을 높이 받들고 국가경제발전 5 개 년계획수행에 떨쳐나선 조국인민들의 힘찬 진군에 보폭을 맞추어 사회주의조국을 위한 애국사업에 특색있게 기여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운 경지에 올려세

워주신 조중친선관계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적극 찾아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은 온 겨레와 우리 전체 재중동포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한결같은 소망을 담아 사회주의위업의 최후승리와 사회주의 내 조국의 영원무궁한 번영을 위하여,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재중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재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주체 112(2023)년 9 월 9 일
중국 심양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경축보고회진행



공화국창건 75 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보고회를 중국 심양 총련합회 회의장에서 진행하였다.

구영혁총령사와 최은복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중앙상임위원들, 경제인련합회와 청년협회 일군들과 회원들, 산하 지구협회 일군들과 지부장들, 분회장들이 참가하였다.

최은복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는 전체 재중동포들은 우리 공화국을 창건해주시고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우리 공화국을 세계가 공감하는 정치군사강국으로 내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충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기적락후와 빈궁이 지배하고 일제의 식민지예속에서 신음하던 우리 나라를 해방하시고 자주독립국가를 세워주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주체조선의 장엄한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영광의 시각을 맞이할수 있었다고 격찬하였다.

그는 해방후 우리 나라의 실정과 우리 인민의 요구에 맞게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건국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전체 인민의 애국열을 새 조선건설에로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우리 공화국은 짧은 기간에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로 빛을 뿌리게 되였으며 태양의 나라 조선을 만대에 길이 빛내일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지니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가장 열렬한 애국의지로 온넋을 불태우시며 부강조국건설에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강국건설 념원을 반드시 실현할 철석의 의지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오늘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참답게 구현되고있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인민의 행복넘친 웃음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끝없이 울려퍼지는 인민의 지상락원으로 전변되였으며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혈연의 정과 도덕의리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성새가 되여 그 어떤 광풍도, 도전에도 흔들림없이 온 세상을 놀래우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항로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총련합회 일군들과 모든 공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서한에서 가르쳐주신대로 총련의 모든 사업을 동포제일주의로 확고히 지향시키고 일관하게 관철하며 우리 해외공민들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옹호하고 공민들의 생활상 요구와 리익, 편의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주력해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우리들뿐만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말을 즐겨쓰고 우리 민족의 력사와 문화유산, 고상한 미풍량속을 옳바로 지켜나가도록 후대교양에서도 모범이 되여야 하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대외혁명활동으로 승화발전된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며 동포조직들과의 련대련합을 적극 진행하고 조중친선강화발전에



유익한 일들을 많이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외혁명활동업적을 더욱 빛내여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이날 공화국창건 75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편지채택모임을 총련합회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편지를 최은복의장이 랑독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 경축공연이 9월 7일 심양시 남풍대극원에서 진행되였다.

최은복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산하 조직대표들, 심양주재 우리 나라 구영혁총령사와 심양에서 사업하고있는 조국일군들, 료녕성과 심양시인민정부외사판공실 일군들과 표성룡회장을 비롯하여 료녕성, 심양시, 단동시 등 조선족 각계층 동포단체책임자들과 동포 1000여명이 경축공연을 관람하였다.

공연무대에는 서장 시와 합창련곡: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로 시작한 경축공연은 남성독창 <내 나라>, 녀성독창;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남성독창; <우리는 길림사람>, 최경호 가수의 독창 <불타는 소원> 을 비롯한 종목들이 올랐다.

공연무대배경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나붓기는 영상이 펼쳐졌다.

공연은 종장 합창; <우리의 국기>, <조중친선은 영원하리라>로 끝났다.

이날 저녁 심양시모란관에서 경축연회가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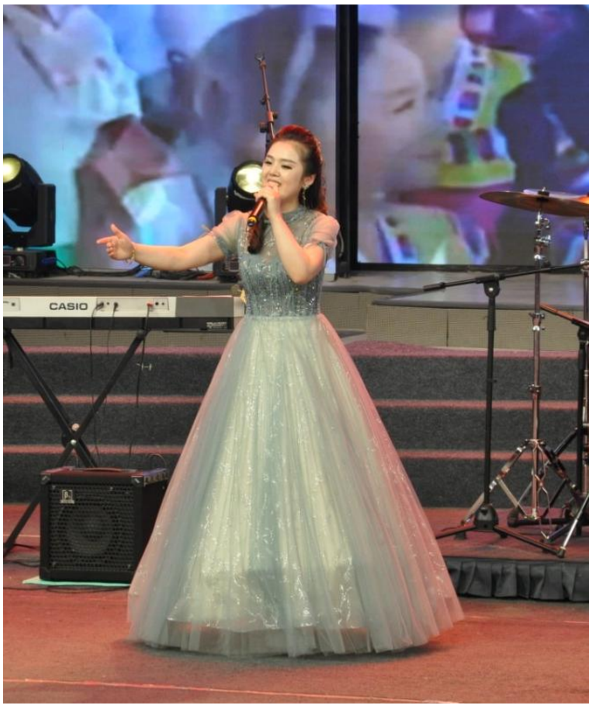

시와 합창 김일성대원수 만만세,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리충일 조영금






MEDELI




CASIO








YAMAHA


유진희 리향미










정다워라 나의 일터여
해맞이판 김영미 외 4명




남성독창
사랑의 봄빛, 那就是我, 불타는 소원
최경호



공화국창건 75돐을 맞으며 산하조직들에서 경축모임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을 맞으며 중남지구협회, 목단강지구협회, 심양시지부, 길림시지부, 장춘시지부, 장백현지부, 백산시지부, 집안시지부, 왕청현지부, 할빈시지부, 연수현지부들에서 경축모임들을 진행하였다.

경축모임 참가자들은 건국이래 일찌기 없었던 존엄과 영광의 절정에서 위대한 우리 국가의 탄생 75 돐을 성대히 경축하여 영광의 국기를 우러르며 사랑하는 조국의 75 년사에 충심으로 되는 경의를 드리였다.

경축모임에서 그들은 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75 년이 가슴벅차게 안겨오고 더욱 강성할 조국의 미래가 내다보이는 력사의 언덕에서 우리 인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경건히 추억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모임들에서는 조국과 운명을 하나로 잇고 사랑과 정성을 다해 국가의 발전을 떠받드는 애국운동으로 공화국의 존엄을 억척으로 지키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위대한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부강발전과 위대한 전변을 위하여, 륭성번영할 강성조선의 찬란한 래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나갈것이라고 마음들을 합치였다.









사진: 차례로 장백현지부, 심양시지부, 길림시지부, 장춘시지부





웃사진: 중남지구협회　가운데: 할빈시지부　아래왼쪽: 집안시지부　아래오른쪽: 연수현지부







무순시공민들과의 만남

료녕의 지부공민들을 만나서

료녕지구협회 권헌회장

원수님의 서한정신에 따라 총련합회본부에서는 8 월에 료녕지구협회 산하 지부공민들의 실태료해사업을 진행하였다.

월초에 본부일군인 동주봉사무국장과 권헌료녕지구협회회장이 령사관 김령사동지와 김처장, 김경수경제인부회장과 함께 차로 무순시에서 살고있는 우리 공민들을 실태료해하려고 갔다.

모임장소는 무순시 김옥순지부장의 아들들이 경영하는 시정부에서 멀지 않는 회사의 사무실이다. 서로들 인사를 나누고 내가 먼저 오래동안 지부공민들과 만나지 못하여 이번에 문안도 하고 함께 식사도 대접하면서 또 외지에서 살고있는 공민들의 출처도 장악하고 우리 공민들의 생활과 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료해하려고 왔다고 서두를 뗐다.

김령사동지가 여러분들을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으려 왔다면서 여러분들이 공민려권을 간직하고 어머니조국을 그리면서 여러가지 곤난에도 공민권을 지키고있는데 감동되였다고 하면서 공민들의 권익을 위하여 지금 우리 공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유관부문에 제출하여 해결받고 또 해결하고있다, 우리 공민들이 자식들을 따라 타지방에 가도 지부조직과 련계를 가지기를 바란다. 어머니조국은 해외에서 살고있는우리 공민들을 잊지 않고 해외동포권익옹호법까지 제정하여 관심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국의 들끓는 소식도 전하였다.

무순시공민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대부분이 의료보험문제이다. 동주봉국장이 다른 지방에서 의료보험문제를 해결한 방법들을 알려주면서 무순시에도 의료보험을 해결받은 공민이 있으니 본인들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무순시상무국의 장용 (张勇) ,란암 (兰岩) 등 유관부문일군들과 만나 무순시공민들이 제기한 곤난한 문제들을 제출하였다.



며칠후 대련공민들의 실태료해를 위하여 기차로 대련에 갔다. 대련공민들도 대부분 의료보험을 해결받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있다. 모두들 나이들이 많아서 병원에 자주가게 되는데 의료보험을 해결하여주지 않으니 이게 될말인



본계시공민들과의 만남

가고 불만을 토하였다.

우리는 대련시 유관부문일군들을 만나 우리 공민들의 애로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하였다.

8 월 중순에 우리는 차를 몰고 우리 공민들을 만나려고 본계시로 내려갔다. 본계시지부공민들의 주로 애로되는 문제는 의료보험해결과 외국인영구신분증이 인터네트에 식별되지 않는것이다. 이때문에 리정애지부장은 자기 어머니가 제때에 치료를 못받아 사망하였다고 비통해하였다.

우리는 그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본계시정부외판 사연（谢妍）주임을 비롯한 여러명의 관계부문일군들과 만나 면담하면서 상기의 문제들을 제출하였다.

이틀후 우리는 안산에 갔다. 안신시지부장 권동욱의 안내로 우리는 안산에서 년세많은 신영숙공민(36 년 9 월 24 일 출생)의 집을 방문하였다. 1977 년에 남편을 잃고 아들과 손녀와 함께 살아왔다는것이다. 조국에도 여러번 방문하였는데 아직 조카들이 있어 또 가보고싶다고 조국방문을 애원하였다.



안산시지부공민들도 외국인영구신분증이 작동이 잘되지 않아 애를 먹는다고 하였다.

안산시상무국의 장상（张爽）부국장을 비롯한 해당 일군들과 만나 상기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대방은 성근한 태도를 보이면서 조사해결하며 해결하지 못한것은 우리에게 통보하겠다면서 공민들을 위하여 찾아온 우리를 환영한다고 말하였다.

하순에는 기차를 타고 단동에 갔다. 단동시에서 살고있는 우리 공민들은 기본상 큰 문제가 없고 대부분 화교를 따라 단동에 온 조국녀성들의 려권과 영구신분증문제이다. 오후에는 경제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단동시정부외사반공실 진덕원（陈德源）과장과 면담을 하였다.

우리는 단동시에 살고있는 우리 공민들은 큰 문제가 없고 다만 화교들을 따라온 조국녀성들의 외국인영구신분증 신청을 제출하였다.

동포제일주의로 모든 사업을 지향시키고 민주주의적민족교육과 동포사회의 민족성고수와 특색있는 공헌을 위한 이번의 료녕지구협회 산하 지부공민들의 실태조사사업을 한단락 맺으면서 우리는 공민들의 애로를 더 잘알수 있었고 해외동포를 중시하는 어머니조국의 따사로운 사랑을 공민들에게 전해주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언제나 마음속에 조국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해외공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조직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공민들을 위하여 공민들을 찾아갈것이다.

목단지구협회에서 9.9 절 경축모임진행



목단강지구협회에서 9 월 5 일 목단강시교구 중홍촌민속촌에서 경축모임을 가지였다. 목단강시, 해림시, 녕안시, 림구현, 계서시 공민들과 가족들, 지원군렬사 가족들,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 전체 참가자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합창하였다.

남초월회장이 공화국창건 75 돐 경축 축사를 하고 김영일부회장이 공화국창건 75 돐을 축하하는 글을 랑독하였다.

김영일부회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15 성상 피어린 투쟁으로 강도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빛내주신 우리 조국이 걸어온 70 여년의 력사를 이야기하고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로 우리조국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군사강국로 세워주신 주체조선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해외에서도 떳떳이 살아가고있다고 이야기 하면서 우리 목단강지구협회 전체 공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조국을 가슴에 안고 총련합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길에서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다 받쳐나갈것이라고 하였다.

모임 참가자들은 오곡백과 무르익는 풍요로운 이 가을의 향기속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축배잔을 들고 노래와 춤을 추며 즐거운 공화국창건명절의 하루를 보내였다.



지부강화에 힘을 넣는 심양시지부

심양시지부모임이 9 월 6 일 본부 회의실에서 진행되였다.

최은복의장동지가 참석하였다.

지부강화에 목적을 둔 이번 모임에서 권헌협회회장이 심양시지부장선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지난 세기 50 년대말부터 공민학습조로부터 시작한 심양시공민활동은 수십년이 지난 오늘까지 3 중모범지부의 영예를 지니면서 총련합회를 받들어 많은 애국사업을 하여왔다. 심양공민조직의 첫 책임자 함옥신으로부터 리인건, 김영수, 김승일, 황영두, 권헌 그리고 김경미 지부장까지 많은 일을 하여왔다. 본부와 령사관이 있는 심양시지부는 총련합회에서 아주 중시하는 지부이다.

지금 김경미지부장이 개인사업으로 지부장사업을 하기 곤난하여 김경미지부장을 해임하고 오래동안 공민사업에 힘써온 심연택선생을 심양시지부장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하였다.

권헌회장은 심연택선생은 대학을 졸업하고 오래전부터 본부청년사업을 하던 젊은 로간부이다. 본부에서 신임하고 기대가 크다. 지금 우리 공민들이 년세가 많아서 지부공민사업에 불편한 점들이 많다. 어려운 시기에 나서서 지부사업을 책임지는 심연택지부장에게 료녕지구협회를 대표하여 감사를 보낸다고 표명하였다.

새로 임명된 심연택지부장도 총련합회의 믿음에 공민들을 잘 모시고 공민활동을 잘하는것으로 보답하겠다고 결의하면서 심양시지부사무장과 위원들을 선출하였다.

모임에 참석한 최은복의장이 말씀하였다. 그는 먼저 심연택지부장의 임명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총련합회를 받드는 심양시지부사업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하면서 해외동포들을 한품에 안겨주는 어머니조국은 해외동포권익옹호법까지 제정하여 우리 동포들을 따뜻이 보살피고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조국은 악성코로나를 박멸하고 12 개경제고지점령에서 큰 성과들을 거두고있다고 찬양하면서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는 긍지를 가져야 하며 심양시공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공민사업에 노력하면서 모두가 건강할것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이날 심양시공민들은 지부의 강화와 활약을 기약하면서 동석식사를 하였다.

사진:사업토의하는 심양시지부 일군들

조국소식

zuguoxiaoxi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경축 대공연 진행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향도따라 우리 국가제일주의기치아래 굳게 단결하여 주체조선의 존위를 온 세상에 빛내여가는 행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을 승리자의 대정치축전으로 기념하는 환희와 격정을 더해주며 9 일 밤 경축대공연이 만수대의사당앞에서 진행되였다.

사회주의국가건설위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동상이 숭엄히 모셔져있는 수도 평양의 유서깊은 만수대기슭은 경축대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모여온 수도의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김덕훈동지, 조용원동지, 최룡해동지와 당과 정부, 군부의 간부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경축행사참가자들, 성, 중앙기관 일군들, 혁명학원 학생들, 평양시민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과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아까데미야협주단 성원들이 초대되였다.

공연에는 국무위원회연주단, 공훈국가합창단을 비롯한 중요예술단체들과 사회와 군대의 예술단체, 예술교육기관 예술인, 학생들이 출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공연무대에는 주체조선의 건국과 발전행로에 높이 울린 수령송가, 로동당찬가들과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수호하고 빛내이는 려정에서 태여난 투쟁의 노래, 창조의 노래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서곡 《우리의 국기》의 숭엄한 선률이 울리는 속에 경축의 밤하늘에 우리 국가의 자주적존엄과 기상, 우리 인민의 무한한 영예와 행복의 상징인 공화국기와 《75 돐》이라는 글발이 눈부시게 새겨졌다.

전체 참가자들은 가슴벅찬 긍지와 애국의 열정, 광명한 미래에 대한 확신에 넘쳐 경축의 밤하늘에 나붓기는 존엄높은 강국의 기발을 우러르며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이어 결출한 건국의 어버이를 높이 모신 민족의 환희를 전하며 삼천리강산을 진감하던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승리의 5 월》을 비롯하여 부강조국건설의 첫 페지를 힘있게 펼치던 새 조선의 모습을 추억깊이 되새겨주는 명곡들이 메아리쳤다.

세계지도에서 사라졌던 조선을 다시 찾아 누리에 밝은 빛을 뿌리게 해주시고 망국과 수난으로 짓눌렸던 민족을 자주적인민으로 억세게 키워 기적의 창조자, 불사신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신 만고절세의 애국자, 불세출의 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이 끓어넘치는 불멸의 송가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이민위천의 반석우에 주체혁명의 산아로 탄생하여 세계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불요불굴의 기상으로 운명적인 국난들과 엄혹한 도전들을 타개하며 전쟁의 포화속에서도, 전후 페허의 재더미우에서도 용감히 솟구쳐 자주, 자립, 자위로 굳건한 강국에로의 길을 개척하고 빛내여온 우리 조국의 자랑찬 력사가 격동적인 년대의 노래들과 함께 뜨겁게 굽이쳤다.

우리의 힘, 우리의 위업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철석의 의지로 달아오른 무대우에 조국번영의 길에서 참된 삶의 긍지와 보람을 찾는 우리 인민특유의 순결무구한 애국충정을 구가하는 명곡들이 련이어 울려퍼졌다.

출연자들은 주체의 항로따라 세대와 세기를 이어 지켜온 사회주의 내 나라를 진함없는 열정과 지혜, 분투로써 세상이 보란듯이 빛내여갈 전인민적인 사상감정을 환희롭고 경쾌한 노래와 무용들로 감명깊게 펼쳐보였다.

우리 국가와 인민이 걸어온 영웅적인 투쟁행로와 이룩한 위업의 신성함을 긍지높이 토로하며 장장 75 성상 백절불굴의 기상속에 승승장구해온 공화국의 력사와 불멸의 영광을 위대한 일심단결, 일편단심의 위력으로 무궁토록 빛내여나갈 인민의 신념을 선언한 설화시 《번영하라 조국이여》로 공연은 절정을 이루었다.

우리 혁명을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정의롭고 강대한 힘의 전진, 불가항력적위업으로 세기우에 거연히 떠올리시며 반만년민족사에 가장 빛나는 강국의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찬연히 펼쳐가시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를 활화로 분출시킨 녀성독창과 합창 《빛나는 조국》, 종곡 《우리의 국



기》로 공연은 끝났다.

축포탄들이 연해연방 터져올라 밤하늘에 황홀하게 부서져내리며 일만경을 펼치였다.

위대한 새시대와 더불어 더욱더 억세여진 애국의 힘으로 공화국의 승리사를 백년, 천년의 대승으로 이어갈 억척의 신념과 충천한 기개, 끝없는 희열로 경축행사장은 격동의 대하를 이루었다.

공화국의 찬란한 력사와 휘황한 미래, 우리식 사회주의의 필승불패성을 장중하고도 아름다운 음악서사시로 펼쳐보인 공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 경축행사의 절정을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강국의 존엄과 영광을 세기에 떨쳐갈 인민의 신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온 나라가 성대히 경축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을 전인민적 명절로 뜻깊게 경축하였다.

세기와 세기를 이어온 장구한 공화국의 발전행로우에 가장 눈부신 승리와 영광의 력사를 수놓으며 자존과 번영의 새시대를 맞이한 천만인민은 조국땅 방방곡곡에 절세위인들을 우러러 터치는 흠모의 꽃바다, 경축의 꽃바다를 펼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밝혀준 사회주의국가건설사상과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 때 우리 공화국은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자주의 강국, 인민의 리상이 전면적으로 실현되는 인민의 국가로, 무한대한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며 세계를 앞서나가는 위대한 나라로 보다 훌륭히 건설될것이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더욱 앞당겨지게 될것입니다.》

존엄높은 공화국의 창건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온 나라 전체 인민은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군중은 우리 나라를 위대한 주체사상의 조국,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으로 빛내여주신 절세위인들의 영구불멸할 업적을 돌이켜보며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만수대언덕을 비롯하여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 태양상, 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찾아 일군들과 근로자들, 인민군장병들과 청소년학생들은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운 혁명선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신미리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와 각지에 있는 렬사릉, 인민군렬사추모탑, 렬사묘들을 찾았다.

각지에서 국기게양식이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의 장중한 선률속에 9월의 창공높이 휘날리는 람홍색공화국기를 바라보며 참가자들은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을 위해 애국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갈 불같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중앙사진전람회장과 중앙미술전시회장을 비롯하여 각지의 여러 전람회장, 전시회장을 찾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세기에 빛날 국가건설업적과 공화국의 국력과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적풍모를 담은 불멸의 화폭들을 깊은 감명속에 돌아보았다.

평안북도, 황해남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북도를 비롯한 각지의 근로단체조직들에서 덕성발표모임, 경축모임, 웅변모임이 있었다.

모임들에서 출연자들은 이민위천을 한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대중중심의 국가건설의 가장 공고한 기초를 마련하시고 독특한 발전력사를 창조하신데 대하여 격조높이 토로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단 1mm의 편차도 없이 계승하시고 더욱 발전풍부화하시여 우리 국가의 백년대계를 굳건히 담보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신념의 맹세를 다지였다.

경사로운 9월명절의 환희를 더해주며 중앙과 지방에서 다채로운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모란봉극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경축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사회주의교향곡》이 열리였다.

음악회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 공화국을 영원한 인민의 나라, 강국조선으로 빛내이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사색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의 위

대성을 예술적형상으로 잘 보여주었다.

연극 《멸사복무》 공연이 국립연극극장에서, 국립교예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종합교예공연이 평양교예극장에서 진행되여 명절을 맞는 수도시민들에게 랑만과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수도의 이르는 곳마다에 야외공연무대가 펼쳐져 명절분위기를 한껏 돋구었다.

피바다가극단은 평양대극장앞에서, 국립민족예술단은 개선문광장에서 혼성중창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남성독창 《내 고향》, 녀성독창 《사회주의 너를 사랑해》 등의 종목들을 펼치였다.

출연자들은 공연을 통하여 희세의 천출위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여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영광넘친 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가 무궁토록 번영할것이라는 철리를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더욱 굳게 새겨주었다.

중앙예술경제선전대, 근로단체 예술선전대들과 대성구역, 대동강구역, 선교구역을 비롯한 여러 구역안의 기동예술선동대, 녀맹예술선동대, 예술소조원들도 다채로운 공연무대를 펼치였다.

당의 령도아래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펴나는 조국의 약동하는 숨결과 끝없이 강성번영할 미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는 종목들은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평안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량강도, 남포시, 개성시 등지에서 경축공연들이 있었다.

녀성 2 중창과 합창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어은금과 녀성중창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혼성중창 《친근한 우리 원수님》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펼쳐진 공연들은 뜻깊은 9월의 명절을 맞이한 인민의 긍지와 환희를 더해주었다.

김일성경기장에서 대동강팀과 룡악산팀사이의 녀자축구경기가, 각지에서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들이 진행되여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총진군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인민에게 혁명적열정과 활력을 안겨주었다.

각지에 펼쳐진 청년들과 녀맹원들의 흥겨운 경축무도회는 명절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수도와 각지의 급양 및 편의봉사망들에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들이 넘쳐흘렀다.

특색있는 명절음식들을 봉사받는 수도시민들의 가슴마다에는 공화국창건기념일을 진정한 인민의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도록 다심한 은정을 베풀어준 어머니당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이 세차게 고패쳤다.

중앙동물원, 자연박물관, 문수물놀이장을 비롯한 각지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도 인민의 물결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을 뜻깊게 경축한 온 나라 전체 인민은 고귀한 투쟁으로 지켜내고 떨쳐온 공화국의 존엄과 영예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끝없이 빛내이며 주체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앞당겨나갈 애국열의에 넘쳐있었다.











공화국선수권대회 개막



공화국선수권대회가 개막되였다.

4. 25 선수단, 압록강체육단 등이 참가하는 이번 선수권대회에서는 축구, 롱구, 력기, 사격, 태권도를 비롯한 31 개 종목의 530 여개 세부종목경기들이 진행되게 된다.

공화국선수권대회 개막식이 13 일 **김일성**경기장에서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일환동지, 사회안전상 리태섭동지, 내각부총리 김성룡동지, 위원회,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민들과 체육인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개막사를 체육상 김일국동지가 하였다. 이어 경기들이 진행되였다.

은률광산에서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개건공사 완공

은률광산에서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를 짧은 기간에 개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가 개건되여 정상운영을 시작함으로써 박토를 다량적으로 처리하여 쇠돌생산을 보다 늘일수 있는 전망이 열리였다.

광산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불과 20 여일만에 개건공사를 결속한 결과 박토처리능력은 지난 시기에 비해 2 배이상 늘어나고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에 의한 제방은 지금 석도를 향해 전진하고있다.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새형의 소형벼수확기 생산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1 500 대의 새형의 소형벼수확기를 생산하였다.

선행공정을 맡은 주물직장, 주강직장, 압연직장, 소재직장을 비롯한 단위의 로동계급은 부분품제작에 필요한 소재들을 제때에 보장하였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새형의 뜨락또르와 벼종합수확기, 모내는기계 등 여러가지 농기계시제품생산을 결속한데 이어 계렬생산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사업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다음해 밀, 보리농사를 위한 전국적인 기술전습회 진행



또한 강조된 문제는 기계씨뿌리기면적을 늘이면서 합리적인 겹재배, 사이그루재배방법을 적극 도입하여 토지리용률을 높이는것이였다.그리고 우량품종들이 육종도입되고있는 조건에서 봄밀, 보리재배면적을 늘여 여러가지 요인으로 가을에 씨뿌리기의 적기를 놓치거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등 정보당수확고를 떨어뜨릴수 있는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지적되였다.

이밖에도 관수대책을 철저히 세워 가물피해를 받지 않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이 강조되였다.

종자정선 및 소독공정, 동력에 의한 씨뿌리기를 비롯한 다양한 파종방법, 가을밀과 강냉이의 겹재배, 사이그루재배형식 등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농사방법을 한가지라도 더 많이, 더 깊이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은 진지하고 열정적이였다.

전습회에서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것은 능률높은 관수설비들과 농기계들이였다.

여러가지 관수설비와 땅다루는기계, 씨뿌리는기계, 농약살포용무인기의 작업모습을 주의깊게 바라보면서 참가자들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농사조건과 방법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데서 농기계도입이 가지는 의의를 다시금 체감하였으며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내밀 결의들을 가다듬었다.

우선 밀, 보리재배면적을 늘이며 지력을 높이고 초기생육을 개선하여 겨울나이률을 높일데 대한 문제였다. 여기서는 적지선정을 바로하고 질좋은 거름을 정보당 ２0t, 소석회는 1t 이상 내며 씨뿌리기전 종자준비를 잘하는것과 함께 밀비료를 넉넉히 주어 초기영양을 좋게 해줄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언급되였다.

다음으로 소출이 높은 우량품종들을 받아들이고 씨뿌리기를 최적기에 끝낼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였다.

참가자들은 풍성농장의 기계화작업반, 소석회생산공정, 유기질복합비료생산장, 종자가공기지 등을 돌아보면서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자면 어떤 안목과 일본새를 지녀야 하는가를 깊이 느꼈다.

끝으로 전습회에서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에 취급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시, 군은 물론 농장, 작업반, 분조, 포전담당자에 이르기까지 관통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여 온 나라의 그 어느 지역, 그 어느 농업생산단위에서나 다같이 과학농사열의를 고조시켜나갈데 대하여 언급 되였다.

기술전습회는 과학적인 농사방법을 확립하고 밀, 보리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임으로써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꿀데 대한 당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뚜렷한 진일보를 이룩하도록 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능률높은 이동식벼종합 탈곡기 제작완성

전당적, 전 국가적으로 농촌을 힘있게 지원할 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받들고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에서 사회주의농촌에 보내줄 수십대의 이동식벼종합탈곡기생산을 결속하였다.

일군들은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짧은 기간에 제작완성하기 위한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대중의 앙양된 정신력을 분발시키면서 직장별경쟁열기를 고조시켰다.

각종 지구장비를 도입하고 설비들을 정비보강한 공장에서는 로동자, 기술자들이 설계상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련관단위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시제품생산을 선행시켜 앞선 경험을 적극 공유,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열의 안고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 합리화안들을 적극 도입하여 탈곡기제작에서 나서는 어려운 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부분품조립을 질적으로 내밀었다.

소재준비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제관품제작을 맡아 소재가공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여 생산의 돌파구를 열어제끼였다.

공무동력직장에서 부분품가공과 조립을 동시에 추진하여 생산과제를 남먼저 끝냈으며 청년조작기구직장에서는 선진적인 작업방법을 활용하여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프레스형타들을 새로 제작도입한 형타직장에서는 선반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제고하여 협동품생산기일을 앞당겼으며 도금종합작업반의 로동자들은 생산의 마감공정인 도장작업을 손색없이 마무리하였다.



화초재배를 과학기술적으로

만경대구역화초사업소는 시적으로 일 잘하는 단위들중의 하나로 손꼽히고있다.올해 사업소의 일군들은 거리와 마을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고 인민들에게 문화정서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 종업원들과 힘을 합쳐 꽃생산량을 지난 시기보다 5배이상 늘이였다.하여 광복거리의 곳곳마다에 이채로운 원림경관을 펼쳐놓아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원림록화사업을 잘하는것은 나무숲이 우거지고 꽃이 만발하게 하여 수도의 풍치를 돋구며 시민들에게 문화정서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우리와 만난 지배인 김정임동무는 과학기술에 튼튼히 의거하여 화초재배를 진행한데 성과의 비결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지난 시기 사업소에서는 남다른 품을 기울이며 화초를 생산하였다.

하지만 거리에 있는 수십개소의 화대들에 봄부터 가을까지 늘 꽃이 만발하게 하는것은 결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낡은 재배방법에만 매달려서는 화초생산을 늘일수 없었고 원림록화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당의 뜻을 관철할수 없었다.

하여 이들은 화초생산을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달라붙었다.

조건이 불리할수록 과학의 힘에 의거하였고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발동하여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도 자체로 풀어나갔다.

화초재배에 효과적인 비료를 자체로 생산하기 위해 일군들은 해당 전문가와 의견을 합치였고 시험포전을 만들어놓고 연구사업을 꾸준히 내밀었다.화초생산의 직접적담당자들인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돌리였다.

이런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끝에 이들은 화초의 생산량을 늘일수 있는 비료를 도입하는데 성공하였다.

뿐만아니라 종업원들속에서는 필요한 빛과 온습도, 영양보장 등 재배관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나가려는 열의가 높아졌다.

단위의 과학기술사업이 전진하는것만큼 화초생산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원림록화사업에서는 근본적인 개선이 이룩될수 있었다.

오늘도 이들은 거리마다에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게 하여 우리 수도 평양을 더욱 문명하게 꾸려나가려는 소중한 마음을 안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있다.

잊지못할 공화국창건의 나날에



국우에는 국호에 깃든 이야기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공화국창건을 준비하시면서 나라의 국호를 제정하는데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당시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나라의 이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

는데 대하여 각방으로 시비질하였다. 그자들은 국호가 너무 길다느니, 외국에서는 나라이름을 그렇게짓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국호를 《인민공화국》이라고 달든가 아니면 《인민》이라는 말을빼고 《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나라이름이야 우리가 주인이 되여 인민의 요구에 맞게 지으면 되지무엇때문에 남을 쳐다보겠는가고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부사람들이 국호에서 《인민》을빼자든가 《민주주의》를 넣을필요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우리 혁명발전의 현 단계의 임무를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 특히조국이 분렬된 조건에서 혁명을수행한다는것을 무시한데서 나오는 매우 그릇된 주장이라고하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나라의 국호를 인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분렬된 우리 나라의 현실, 우리 혁명의 당면임무와 근본목적을 다같이 고려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교시하시였다.

국가가 전하는 사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를 창작하는 사업도 정력적으로지도해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일군들과 창작가들을 부르시여 반만년의 오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우리조국에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창작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그대로 명곡의 가사가되고 선률이 되였다. 주체 3 6(19 47)년 6 월의 어느날국가의 시청회가 진행되였다. 노래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이란 시행부터그 아래를 반복하는것이 좋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력사를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번만 부를수 있겠는가고, 다시한번 부르면 선률로 보아서도 더 효과적이고 음악상 조화도 잘될뿐아니라 노래도한결 장중해지고 부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긍지감과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고하시였다. 오늘도 공화국인민은 국가를 들으며 가사의 주제와 내용, 작곡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지도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를 깊이 새겨안고있다.

만장일치로 합의된 국기와 국장도안



주체 37(1948)년 봄

어느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녀사께서는 국기, 국장도안을 놓고 한 일군과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녀사께서는 장군님께서는 국기가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싸운 투사들이 흘린 붉은 피와 당의두리에 뭉친 혁명력량을 상징하는붉은색을 기본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하시였다고, 그리고 우리 인민의 기백을 상징하는 표시와 미래의승리를 상징하는 오각별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과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상징하는 별을 국기와 국장안에 그려넣는것을 놓치지 말데 대하여특별히 강조하시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심의를 하루 앞둔날 국기와 국장도안을 책상우에 펴놓으시고 밤깊도록 사색을 이어가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국장안에 그려넣은 용광로가 마음에 들지않아 그러는데 용광로대신 전기화와 관련한 내용을 담는것이 어떤가고 김정숙녀사께 물으시였다.녀사께서는 이에 적극 찬성하시면서 발전소를 그려넣는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리였다.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면서 국장도안에 연필로 수풍발전소의 모형을 표시하시였다.이렇게 창작된 국장과 국기도안은 심의성원들의 만장일치로 합의되였다.

대외관계

duiwaiguanxi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9월 8일 공화국창건 75돐 경축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류국중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을 반갑게 맞이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나누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존경하는 습근평동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에 즈음하여 우리 당과 정부,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주고 뜻깊은 기념행사에 당 및 정부대표단을 파견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국동지들이 공화국창건기념행사에 참가하여 우리 국경절행사가 더욱 빛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통하여 습근평동지와 중국당과 정부가 조중관계의 특수성을 매우 중시하고있다는것을 깊이 느꼈다고 하시면서 이에 사의를 표하시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습근평동지가 건강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위업을 령도하는 중임에서 계속 훌륭한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하시면서 중국인민이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중화의 부흥이라는 원대한 꿈을 반드시 실현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친선적인 담화에서는 조중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여러 분야의 협조와 협력사업을 더욱 활성화해나갈데 대하여 견해일치를 보았다.

담화는 시종 동지적우의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당 및 정부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끝)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아까데미야협주단의 축하공연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에 즈음하여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알렉싼드로브명칭 로씨야군대아까데미야협주단의 축하공연이 9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당과 정부,군부의 간부들이 평양시안의 예술인들과 함께 공연을 보았다.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대사관 성원들이 공연관람에 초대되였다.

공연무대에는 로씨야군대와 인민의 열렬한 조국애와 락천적인 생활모습, 민족적풍습을 보여주는 전시가요들과 군가들, 민요와 무용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정의의 싸움》, 《오직 승리 하나일뿐》, 《꾀꼴새》, 《승리의 날》을 비롯한 노래들을 통하여 지난 위대한 조국전쟁시기 파시즘의 침공으로부터 사랑하는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결전에서 무비의 영웅성과 완강성을 발휘한 로씨야군대와 인민의 애국주의정신과 전투적기개를 잘 보여주었다.

공연무대에 펼쳐진 《까자크의 기병춤》, 《45 년 봄》, 《로씨야춤》을 비롯한 무용종목들도 경쾌한 선률과 박력있고 재치있는 률동,풍부한 예술적기교로 하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조로친선의 정을 안고 출연자들이 부른 우리 나라 노래 《영웅의 그 나이 열여덟이였네》와 《내 고향》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공연은 혼성합창과 관현악 《우리 친선 영원하리》, 《모스크바교외의 밤》으로 끝났다.

로씨야의 관록있는 예술단체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준 세련되고 열정적인 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과 우리 나라 주재 로씨야련방대사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출연자들에게 전달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을 축하하여 로씨야군대협주단이 평양에서 펼친 공연은 반제자주를 위한 투쟁에서 날로 승화발전되고있는 조로친선의 뉴대와 공고성을 보여준 의의깊은 계기로 된다.(끝)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인 습근평동지가 9 일 축전을 보내여 왔다.

축전은 다음과 같다.

총비서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에 즈음하여 중국공산당과 중국정부,중국인민을 대표하여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과 조선로동당과 정부,인민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75 년간 조선로동당의 굳건한 령도와 조선인민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조선의 사회주의건설위업은 끊임없이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최근년간 총비서동지는 조선당과 인민을 령도하여 조선로동당 제 8 차대회와 당중앙전원회의들의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큰 힘을 넣어 중요한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총비서동지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형제적조선인민이 반드시 조선의 사회주의위업을 추동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며 새로운 단계에 올려세우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중국과 조선은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친선적인 린방입니다.

두 당, 두 나라 로세대령도자들이 몸소 마련하고 가꾸어온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두 나라 인민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였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굳건해지고있습니다.

나는 최근년간 총비서동지와 5 차례의 상봉을 진행하고 여러가지 형식으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면서 전통적인 중조친선협조관계가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들어서도록 공동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백년이래 있어본적이 없는 대변화가 급속히 일어나고있는 속에서 국제 및 지역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전통적인 중조친선협조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훌륭히 공고히 하며 훌륭히 발전시키는것은 시종일관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입니다.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국측은 조선측과 함께 전략적의사소통을 강화하고 실무협조를 심화시키며 중조관계를 시대와 더불어 전진시켜 보다 큰 발전을 이룩하도록 추동함으로써 두 나라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복리를 마련해주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발전번영에 보다 큰 기여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귀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안녕을 축원합니다.(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로씨야련방 대통령 웨.뿌찐이 9일 축전을 보내여 왔다.

축전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에 즈음하여 당신에게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냅니다.

75년전 쏘련은 조선땅우에 세워진 새 독립국가를 제일먼저 인정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두 나라사이의 관계는 친선과 선린, 호상존중의 원칙에 기초하여 변함없이 발전하고있습니다.

또한 여러 분야에서 건설적인 협조의 풍부한 경험이 축적되였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우리들이 공동의 노력으로 모든 방면에서의 쌍무적련계를 계획적으로 확대해나가게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는데 기여할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건강하고 성과를 거둘것을 진심으로 축원하며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공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의를 표합니다.(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주체 112.9.9.]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꾸바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주체 112.9.9.]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대브리텐 및 북아일랜드련합왕국 국왕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바레인국왕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주체 112.9.1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민주꽁고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주체 112.9.10.]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세이쉘대통령이 축전을 보내여왔다 [주체 112.9.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돐에 즈음하여 대공연 일본 도꾜에서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5 돐경축 대공연 《우리의 국기》가 6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박구호제 1 부의장 겸 조직국장, 부의장들, 고문들, 국장들, 간또지방 총련본부 위원장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동포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금강산가극단과 도꾜조선가무단 등의 예술인들과 각계각층 동포들이 출연한 공연무대에는 합창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녀성독창 《조국을 노래하네》, 남성중창 《언제나 빛나라 우리의 총련》, 녀성중창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무용 《쟁강춤》, 아동중창과 무용 《가슴펴고 걸어갈래요》, 관현악 《빛나는 조국》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위대한 인민의 나라, 강대하고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재일동포들의 기쁨과 환희가 장내에 차넘치는 가운데 공연무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가 나붓기는 영상이 펼쳐지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울려퍼졌다.

75 년전 공화국창건당시의 기록영화를 배경으로 랑송된 시 《공화국의 창건》은 참가자들 의 마음속에 숭엄한 추억의 세계를 불러일으켰다.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삶을 누려갈수 있게 된 커다란 영광을 구가한 노래들과 민족적색채가 짙고 흥취나는 무용들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이역땅에서도 민족의 넋을 굳건히 이어가고있는 재일동포들과 청년학생들의 모습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로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이룩해나가고있는 조국의 발전모습들을 보여주는 영상과 함께 애국의 대, 민족의 대를 꿋꿋이 이어갈 맹세를 담은 결의시 《9월의 다짐》, 남성독창과 합창 《우리의 국기》, 합창과 무용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의 예술적화폭이 펼쳐지자 공연은 최절정을 이루었다.

공연은 뜻깊은 공화국창건 75 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리는 축하와 감사의 마음을 담은 합창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로 끝났다.

어머니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맥박치고 민족적정서가 차넘친 공연은 관람자들의 커다란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괴뢰 전 지역에서 미군철수, 핵오염수방류저지, 윤석열퇴진을 위한 제56차 초불집회와 시위 광범히 전개

괴뢰 전 지역에서 민족에게 핵재난을 들씌우려고 발광하는 미국과 일본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이에 추종하는 사대매국노, 앞잡이를 몰아내기 위한 각계층의 투쟁이 더욱 고조되고있다.

미군이 괴뢰지역을 강점한 9월 8일 서울, 광주, 부산을 비롯한 각지에서는 3각전쟁동맹 페기, 미군철수, 전쟁광 윤석열역도퇴진을 요구하는 각계 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격렬히 벌어졌다.

투쟁장소들에는 《전쟁위기 돌격대 미군은 이 땅을 떠나라!》, 《미국과 일본에게는 굽신굽신 윤석열은 퇴진하라!》, 《훈련하다 전쟁난다! 련합전쟁연습 당장 중단하라!》 등의 대형프랑카드와 선전물들이 등장하였고 《일본군비증강 규탄한다!》, 《윤석열을 끌어내려 전쟁을 막자!》, 《평화 위협하는 3각동맹 반대한다!》, 《매국노 전쟁광 윤석열을 몰아내자!》라는 함성이 터져나왔다.

참가자들은 1945년 9월 8일 이 땅을 강점한 때부터 미군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끊임없이 위협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미국과 야합한 대북적대정책과 3각군사협력, 련합훈련 등으로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전쟁상태에 놓였다고 단죄하였다.

3각동맹의 심각성은 조선반도를 핵전쟁위기에로 몰아넣는다는데 있다, 《유엔군사령부》라는것은 유엔의 간판을 도용한 미군의 유령부대이다, 얼마전 력대 최대규모로 강행된 련합전쟁연습인 《을지 자유의 방패》를 비롯하여 올해에만도 전쟁연습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항의자들은 윤석열에 의해 일본《자위대》의 조선반도진출이 합법화되였다, 머리속에는 오직 미국, 일본밖에 없는 매국역적 윤석열은 전쟁돌격대가 되여 우리 민중을 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몰고있다, 미군을 철수시키고 이 땅의 모든것을 팔아먹으며 민중을 위험에 빠뜨리는 윤석열에게 맞서 초불민중과 함께 싸울것이다,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을 반드시 퇴진시켜야 한다고 성토하였다.

미군을 몰아내려는 민중의 의지가 뜨겁게 분출하고있다, 미국이 살길은 조선반도를 포기하는 길이다, 미국은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하고 이 땅을 떠나야 한다, 미국의 하수인노릇하며 민중을 전쟁의 소용돌이속에 밀어넣는 윤석열을 반드시 퇴진시켜 평화를 이룩할것이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9일 서울에서 《일본후꾸시마핵오염수 해양투기중단, 투기용인 윤석열정부규탄 3차 범국민집회》와 윤석열역도퇴진을 요구하는 제56차 초불집회와 시위가 광범히 전개되였다.

《일본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저지 공동행동》,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의 주최로 열린 범국민집회에 수많은 각계층이 참가하였다.

발언자들은 윤석열은 일본냄새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뼈속까지 왜놈이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되여있는 미군의 후방기지가 바로 일본에 있다, 윤석열이 《자위대》가 조선반도에 진출할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윤석열의 친일행보를 그대로 놔두면 독도가 《다께시마》가 되고 동해가 《일본해》로 될것이다, 윤석열《정부》의 반역적행위와 민주, 평화파괴, 민생파탄행위를 민중이 심판할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참가자들은 《바다는 핵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 핵오염수투기 철회!》, 《윤석열정권 규탄!》, 《일본앞잡이 윤석열을 몰아내자!》, 《윤석열정권 규탄! 지키자! 국민의 안전, 생명의 바다!》 등의 대형프랑카드와 구호판들을 들고 《후꾸시마핵오염수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일본을 대변하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일본산 수산물수입 전면금지하라!》고 웨치면서 시위행진을 하였다.

서울시청광장주변에서 열린 초불집회장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기어이 일으키려는 미일과 그 앞잡이, 전쟁광 윤석열역도에 대한 성토장이였다.

로동자, 농민, 대학생, 종교인 등 수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지금 이 땅이 마구 로략질을 당하고있다, 안에서는 도적놈들이, 밖에서는 강도들이 살판치고있다, 반역자들, 왜적들을 초불로 반드시 제압해야 한다, 윤석열을 괴수로 하는 검찰파쑈세력들을 모조리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을 반드시 퇴진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단계의 투쟁으로 즉각 전환해야 한다, 윤석열을 퇴진시키기 위한 투쟁을 범국민적항쟁으로 확대시키자, 하루빨리 무소불위의 정치검사세력 윤석열패당을 이 땅에서 쫓아내자, 윤석열을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다고 그들은 다짐하였다.

그들은 윤석열역도의 흉상을 그린 대형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을 진행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초불로 청산!》, 《초불항쟁은 21 세기의 독립운동!》, 《친일파가 들끓는다 초불로 박멸하자!》, 《일본용역정권 윤석열을 몰아내자!》, 《더이상은 못참겠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일본에는 충성! 국민에겐 폭압!》, 《조선총독 윤석열을 탄핵하라!》 등의 대형현수막과 구호판들을 들고 《미군강점 이제는 끝장내자!》, 《우리모두 단결하여 탄핵으로 윤석열정권을 박살내자!》,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처단하자!》, 《일본앞잡이, 친일매국노 윤석열을 초불로 응징하자!》고 웨치며 미국대사관, 일본대사관을 향하여 시위행진을 단행하였다.

대학생진보련합을 비롯한 대학생단체들은 북침전쟁연습의 완전한 중지, 3 각군사동맹페기, 일본의 핵오염수방류저지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전남대학교, 한양대학교, 경북대학교 등 괴뢰전 지역의 거의 모든 대학교들이 《일본의 핵오염수해양방류는 전 세계를 향한 핵테로》, 《윤석열은 일본을 옹호하고 이를 걱정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괴담이라고 치부하고있다.》, 《윤석열정권의 로골화되는 반민족적행보를 두고만 볼수 없다.》,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퇴진의 초불을 들자.》 등의 내용으로 된 대자보들을 게시하고 윤석열역도퇴진투쟁에 나설 의지를 피력하였다.

서울, 대전을 비롯한 각지에서 새로 결성된 지역별단체들이 윤석열역도퇴진, 일본핵오염수방류저지를 위한 투쟁에 진입하고있다.

7 일 청년초불행동은 서울에서 《검찰독재, 친일정권 끝장내자!》라는 주제의 집회를 열고 윤석열역도퇴진투쟁에 앞장설것을 선언하였다.

발언자들은 4. 19 민중항쟁, 부마항쟁, 5.18 광주민중항쟁, 6 월항쟁, 박근혜탄핵초불항쟁 등은 파쑈독재와의 싸움이였다고 주장하였다.

윤석열《정권》은 미국, 일본에 굴종하는 식민지외교를 자행하면서 대결정치, 독재통치로 일관하고있다, 윤석열을 퇴진시켜야 핵도박속에 빠져든 조선반도를 위기에서 구원할수 있고 민중을 살릴수 있다, 침묵하지 말고 싸워야 한다고 하면서 참가자들은 《싸워서 미군을 내몰고 윤석열을 퇴진시키자.》, 《초불은 이긴다.》고 웨쳤다.

종교인들은 일본대사관앞에서 《결단의 기도회》를 가지고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를 끝까지 막아낼것을 결의하였다.

발언자들은 생명의 바다를 쓰레기장으로 삼는 일본과 이를 비호두둔하는 윤석열《정권》을 향한 투쟁을 선언한다, 핵오염수의 해양투기가 이미 시작되였다고 하여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다고 강조하였다.

《일본핵페수 해양투기저지 대전행동》은 초불집회를 열고 일본의 핵오염수해양투기는 인류에 대한 핵공격이자 지구생태계전체에 대한 핵테로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발언자들은 미국이 자국내의 바다에서 방류하는 방사성페기물의 방류를 금지시킨 반면 일본의 핵오염수방류는 지지하였다, 윤석열《정권》은 핵오염수방류를 지지하였을뿐 아니라 광고편집물까지 만들어 배포하는 미친짓을 하였다, 일본의 립장만 대변하고 민중을 탄압하는 윤석열《정권》은 필요없다고 단죄하였다.

집회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일본정부 대변하는 윤석열을 심판하자!》, 《일본의 핵오염



수해양투기 찬성하는 윤석열은 퇴진하라!》고 웨치며 시위행진을 단행하였다.

인터네트홈페지들에는 《윤석열은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놈이다!》 등의 글들이 끊임없이 오르고있으며 정치평론가들은 《전쟁을 부르는 매국노 윤석열을 몰아내자!》는 집회가 그치지 않고있다, 윤석열《정권》의 사대매국과 전쟁책동, 파쑈독재통치, 반로동, 반서민정책에 대한 각계층의 분노이다, 나쁜짓을 하면 비난받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순리이다고 주장하고있다.

목릉시 조선족로인 협회 항일밀영지 동북항련문화기억관 방문



지난 9월 7일 목릉시 조선족로인 협회에서는 9.18 나라의 치욕 력사를 명기하는 교육활동으로 하성자진에 있는 고유촌(孤榆村)의 항일 밀영지 동북항련문화기억관을 방문했다.

9월의 시원한 바람에 싱그러운 가을 정취를 한껏 마시며 50여명의 회원들은 숭고한 마음을 안고 첫 코스인 산중에 자리잡은 초소로 향했다. 은밀한 산중에 높이 솟은 전방초소 아래에 용사와 말, 그 옆에 장군샘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그제날 수많은 항일용사들이 이곳에서 밀영지를 지키며 싸우다가 아직도 이 산속의 그 어느곳에 이름없이 누워있는 렬사들이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 졌다.

다음 코스 밀영지에 이르러 작전부, 훈련장, 정보 교환장소 목욕탕을 둘러 본후 전시장으로 향했다.

우리 목릉대지는 홍색렬토임에 손색이 없었다. 이고장은 중공길동국 중공수녕중심현위 등 당의 고위급기구 집거지로서 중동철도 직공부가 여기에서 탄생하고 동북항련 제 2, 제 4, 제 5 군의 기원지이며 공산국제 교통참이기도 했다.

동북항일련군은 1931 년~1945 년 14 년간 가렬한 전투를 진행했다.

1930 년 중공목릉현위가 성립되였는데 제 1 임서기가 조선족인 김서현이며 위원 대부분이 조선족이였다는 점에서 회원들은 우리민족의 애국정신에 더없는 긍지감과 숭고한 마음을 가졌다.

그날 항련밀영지를 참관한 회원들은 렬사들의 피로 물들인 이 영광의 고향에서 우리 복받은 로인들은 얼마나 행복한 만년을 보내는지를 새삼 느끼면서 애국심을 불러 일으키는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김정옥

35 년째 반석처럼 끄떡없이 시골학교를 지켜선 김영칠교원

최근, 2023 년도 '길림 좋은 사람 • 가장 아름다운 교원 및 황대년식 좋은 선생님' 칭호를 수여받으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장백조선족자치현 신방자중심학교 호동구촌 학구 김영칠선생님의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있다. 그의 평범하면서도 아름다운 교육 이야기는 산간마을의 평범한 인민교사로서의 헌신과 사랑이 담겨 있다.

1988 년, 김영칠은 교원직업에 대한 열망으로 장백조선족자치현 신방자중심학교의 대리교사 채용에 지원했다. 합격은 했지만 가족의 반대가 심했다. 하지만 그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호동구촌소학교로 몸을 향했다.

그 당시 호동구촌은 빈곤촌으로 많이 알려졌다. 낡은 교실과 부서진 책상, 울퉁불퉁한 운동장, 그리고 끊기기 일쑤인 수도와 전기... 학교의 렬악한 교수 환경은 열망으로 가득찼던 김영칠에게 많은 고민을 가져다주게 되였다.

"학생들의 배움에 대한 무한한 갈망의 눈길을 보고서는 그냥 떠날 수 없었습니다." 김영칠은 당시의 심정을 토로했다.

그렇게 김영칠은 장백현에서도 가장 멀리 떨어진 호동구촌 학구를 35 년째 지키게 되였다. 그사이 수많은 학생들이 졸업했고 많은 교원들도 오갔지만 김영칠은 마치 반석마냥 교단을 굳건히 지키면서 300 여명의 학생들이 이 산간지역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1996 년에 김영칠은 엄격한 업무 태도와 우수한 교수법으로 인해 학교의 우수 교사로 선정되여 신방자진중심학교로 조동할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자신의 발전을 위해 호동구촌 학구의 학생들을 뒤로 한채 혼자서 떠난다는 것은 학생들에 대한 무책임이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거절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은 '우리 아이를 김선생님에게 맡기면 저희는 시름이 놓입니다.' 라는 학부모들의 말때문이였습니다." 고 김영칠은 떠날수 없었던 진실에 대해 이야기 했다.

2009 년, 장백조선족자치현에서는 의무교육단계의 교학 환경이 어려운 일부 학교들을 통합하기 시작했으며 호동구촌 학구도 이에 포함되였다. 학부모들은 이 소식을 접하고 폐교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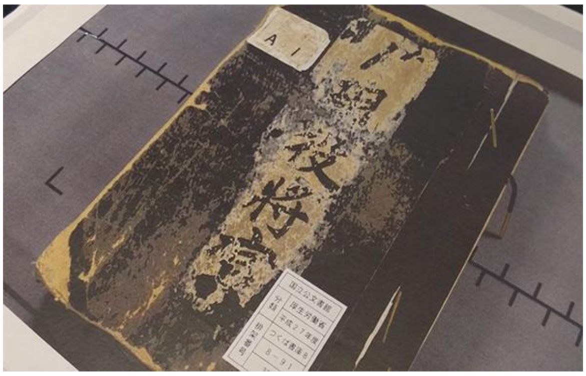
아이들이 멀리 떨어진 산길로 학교를 다녀야만 했고 학전반 학생들은 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불안감에 초조해했다. 모두가 불안한 시선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김영칠은 반드시 이 학교를 지키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학부모들을 안심시켰다. 그리고 그의 안해도 중심학교에서 호동구촌 학구로 조동하여 함께 교학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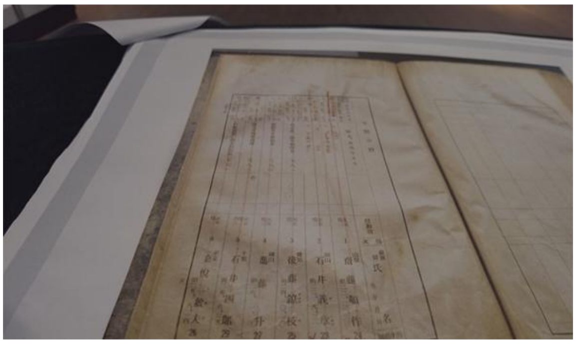
2013 년에 호동구촌소학교가 전면적인 보수작업에 들어가게 되였다. 김영칠은 방학 내내 쉬지 않고 매일 종업원들과 함께 일했다. 교정의 푸른 잔디와 넓고 밝아진 교실을 보고 김영칠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넘쳐흘렀다.

김영칠은 그동안 모든 사랑과 정성을 학생들에게 쏟아부었다. 매일 그는 일찍 일어나서 그날의 수업을 준비하고 이어서 교실, 복도, 운동장, 화장실을 청소한다. 겨울에 그는 일찍 교실에 나가서 난로를 피우고 물을 끓여서 아이들이 따뜻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수 있도록 했다.

“농사철에는 바쁜 농사로 촌민들은 어린 애기도 학교에 보냅니다.” 농사철에는 촌민들은 아침 5 시에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기도 했는데 김영칠은 늦은 시간까지 불평없이 그들을 돌봐주군했다. 김영칠은 촌민들에게 있어서 교사가 되여줄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를 대신하는 역할까지 했다.

35 년동안 김영칠은 자신의 청춘과 열을 모두 산간마을의 교육사업에 바쳤다. 그는 반석처럼 굳건히 지켜서서 학생들의 외지에 가서 공부해야 하는 고생을 면하게 하였고 모든 적령기 어린이들이 학습을 할수 있게 도왔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불태워서 학생들의 앞길을 비춰주었다. 길림신문





중국침략 일본군 731 부대 군의관 명부 최초 공개!

‘9.18’ 사변 92 주년을 맞아 중국침략 일본군 731 부대 범죄증거전시관은 최근 발견된 중요한 력사자료인 중국침략 일본군 군의관 명부를 공개했다.

이 력자자료는 흑룡강 외국어학원 초빙교수인 일본 학자 마쓰노 마코토가 올해 7 월에 일본 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한 것이다. <장교명부 현역장관>, <장교명부 현역군의관>이라는 력사자료는 731 부대 군의관의 기본정보와 1944 년 이후 그들의 소속, 조정, 제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중장부터 소위까지 731 부대와 다른 보건부대의 인원 이동상황을 포함하고 있는바 이는 731 부대가 다른 보건부대와 인적 교류가 있었음을 증명한다.

마쓰노 마코토는 이 력사자료는 2 권으로 나뉘는데 장교, 소장, 그 이상의 일본 고급장교와 군의관 대좌, 소위 등이 포함되여있다고 소개했다. 례하면 731 부대 2 대 부대장 이시이 시로(石井四郎), 기타노 마사츠구(北野政次)가 언제 군의관 소장이 되였는지, 중장이 되였는지, 언제 근무이동이 있었는지 등 상황이 정확히 기록되여있다. 남경에 설치된 중국침략 일본군 1644 부대 장교 명부도 최초로 발견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민속관광과 지혜농업으로향촌진흥의 날개 달았다

계서시 영풍향 풍안촌 김성일 당지부서기

우아한 계관산(鸡冠山)이 바라보이는 그리고 푸르른 목릉하 (穆棱河) 가 마을남쪽으로 유유히 흘러가는 이곳이 바로 계서시 성자하구(城子河区) 영풍조선족향 (永丰朝鲜族乡) 에서 가장 큰 조선족마을인 풍안촌 (丰安村) 이다. 이 촌에서 11 년간 촌주임, 당지부서기를 담당하면서 풍안촌에 민속관광과 지혜농업을 도입하여 향촌진흥의 날개를 달아준 김성일씨(1964 년생 59 세)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풍안촌의 전신은 1937 년도에 설립된 일신툰(日新屯)이다. 당시 양시(杨氏)성의 조선족 3 호가 이 마을을 개척하였다. 해방후에 풍안촌으로 개명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풍안촌의 호적인구는 353 호에 839 명이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호적인구는 110 호에 120 여명이다. 이중 외래호가 30 여명 포함된다. 촌의 경작지 면적은 2657.12 무, 그중 수전이 1921.34 무로 일인당 평균 2 무씩 배분된다.

개혁개방초기 농사일에만 매달리던 김성일씨는 남보다 일찍 장사에 손을 댔다. 당시 계서시에서 광익성(广益城)이라는 가장 큰 도매시장내에서 20 년간 콩나물 도매장사를 하여 큰 돈을 벌었다. 하루에 1000 근 정도씩 팔았는데 하루 수입이 600-700 여원, 년 순수입이 15 만-20 만원에 달하였다. 90 년대에 이 돈은 그야말로 큰 금액이였다. 김성일씨는 당시 콩나물장사로 100 만부자가 된 "콩나물아저씨"로 소문이



자자했다.

그러던 2011 년말에 풍안촌에서 새로운 촌주임선거가 있게 되였다. 마을사람들은 능력있고 경제창출 실력이 있는 김성일씨에게 몰표를 주었다. 선거결과가 발표된후 김성일씨는 모순에 빠졌다. 계속 돈벌이하면 좋은데 또 날로 인구가 류실되고 위축되어여 가는 고향마을의 추락을 보고만 있을수도 없는 상황에 닥친 것이다.

"고향사람들의 믿음에 보답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만류에도 결연히 촌주임으로 나섰습니다."

김성일씨가 그때를 회억하면서 하는 말이다.

"한번 결심하면 끝까지 간다."

이것이 김성일씨의 일본새이고 좌우명이다.

"내가 마을을 책임졌으니 끝까지 노력하여 어느 농촌마을보다 부유한 동네로 만들어보자."

김성일씨는 당시에 먹은 마음을 한시도 변치 않고 오늘까지 11 년을 촌민들을 의해 봉사해오고 있다.

김성일씨가 촌주임, 당지부서기로 당선되여 중점적으로 틀어쥔 사업이 조선족마을의 우세를 살린 민속관광과 지혜농업이다.

2012 년 그는 마을사람들을 거느리고 원 학교운동장 가장자리에 400 평방미터에 달하는 촌사무실을 새로 건설하였다. 1 층을 로인문화참 및 활동실로 활용하였다. 동시에 학교운동장을 적극 활용하여 광장을 만들고 운동기재를 설치하였으며 문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을 만들었다. 그때로부터 마을건설은 급물살을 탔는데 마을도로, 록화, 가로등, 울타리, 공공화장실 등 공공기초시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외지 관광객들의 방문에 편리를 도모했다.

김성일 당지부서기는 영풍조선족향당위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하에 상급으로부터

소수민족사업자금 536 만원을 유치하여 풍안조선족특색마을 1 기, 2 기, 3 기 프로젝트를 건설했다. 풍안조선족촌 특색민속풍정원이라 명명한 이곳은 현재 당지에 유명한 관광지로 탈변하여 매일마다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성일 당지부서기는 마을에 일이 있을때마다 지원과 방조를 아끼지 않는 영풍조선족향 박복철 향장을 비롯한 정부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또 원 학교의 교사건물을 개조하여 "조당식당(朝堂饭店)"을 유치하였다. 2022 년 조당식당은 촌에 11.5 만원의 수입을 가져다주었으며 앞으로 계속 이 수입이 증가될 추산이다.



김성일 당지부서기가 사계절 운영할수 있는 지혜농업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촌 동쪽에 2 만평방미터에 달하는 온천호텔건설을 투자유치로 개발임대하여 겨울철 관광객들의 투숙과 볼거리 놀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풍안촌의 괄목할만한 발전은 외지 투자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올해도 한국에서 생활하던 촌민 11 호가 아예 고향으로 돌아와 생활하고 있다.

김성일 당지부서기의 선두 기러기 역할로 풍안촌은 2019 년에 "흑룡강성향촌관광시범촌", 2020 년에 "흑룡강성향촌관광중점촌"의 명예를 받아안았으며 2022 년도 "전국향촌관광중점촌"에 평선되였으며 금년에는 "전국향촌관광중점추천로선"에 선택되였다.

11 년전에 콩나물장사로 100 만 부자가 된 김성일씨, 촌의 책임자를 맡으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고향을 위해 일하니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가장 고마운 사람을 말하라고 하니 그래도 아내라고 한다. 5 살 아래인 부인 곽영애씨는 밀산에서 그에게도 시집왔는데 남편이 무엇을 하든 결정만 하면 무조건 따르는 현처량모이다. 35 살나는 아들은 현재 며느리와 함께 천진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나를 믿고 따르는 안해가 고맙고 나에게 무한한 신임을 해준 촌민들이 고맙습니다. 우리 풍안촌을 일등부자촌으로 건설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자를 안내하여 집안을 구경시켜주던 김성일씨는 사랑하는 안해의 보면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다. /박영만 기자

'성건컵' 할빈시 아성구 조선족로인운동회 뜻깊게 개최

성건, 금수 등 10 개 아성 조선족촌 400 여명 참석



하늘도 청청 바람도 선들선들 오곡이 무르익는 수확의 계절에 푸르른 인공잔디로 곱게 포장된 이곳 아성구조선족중소학교 운동장이 오랜만에 모여든 로인들로 법석이였다.

'성건컵'할빈시 아성구 조선족로인운동회가 9 월 10 일 이곳에서 정식으로 개최된 것이다.

알록달록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성구 조선족 소학교 학생들이 해동, 신광, 선풍, 홍신, 홍광, 성광, 동광, 고승, 김수, 성건 등 아성구 산하 9 개 조선족마을의 이름을 새긴 패쪽을 들고

대기선에서 서있었다. 그 뒤로는 각 촌에서 모여온 조선족로인들이 한복과 무용복을 입고 입장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8 시 정각 운동원 입장식이 시작되였다. 각 촌에서 파견한 로인선수들이 안내 소학생들의 인도하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석대앞을 지났다.

아성구공업정보화국 최형일 부국장(조선족)이 래빈축사를 하였다. 그는 축사에서 "코로나가 발생한후 중단되였던 운동회가 오랜만에 개최하게 되였다"면서 "9 월 10 일 교사절을 맞이하는 겹경사에 교원들에게도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하였다. 그는 "이번 운동회 무대를 계기로 노래와 춤을 즐기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전통을 전시하고 이웃간의 우정을 돈독히 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명절날을 보내기 바란다"고 덕담했다.

흑룡강신문 책임자의 축사에 이어 아성구조선족중학교 최호림 교장으로부터 이번 행사를 협찬해준 명단을 발표했다.



아성구조선족중학교 최호림 교장

흑룡강달풍과학기술회사(达丰科技) 김희선 사장, 아성구조선족촉진회 김종학 회장, 할빈시조선민족로인문화총회 정학철 부회장, 할빈원동리공지능제조회사 등 회사와 개인들이 많은 후원을 보내왔다. 아성구에서 가장 큰 조선족마을인 성건촌(서기 진학봉)에서 이번 운동회를 관명(冠名)하였다.

이어 아성구조선족친목회 김종학 회장이 운동회의 개막을 선포했다.

이번에는 문예절목 공연 차례다. 해동촌을 시작으로 홍신, 홍광, 김수, 성건촌에서 알심들여 준비한 단체 무용과 농악무가 선보였다.

로인들은 금년 3 월부터 이번 운동회를 위해 준비를 해왔다고 한다. 인원이 부족하고 농사일이 바쁜 상황에서도 짬짬히 시간을 내어 련마한 것이 이제는 제법 무대에 설 정도로 숙련되여 있었다.

마지막에 선을 보인 성건촌의 대형 농악무는 행사 분위기를 고조로 이끌어갔다. 40 여명의 로인들이 민속복장 차림으로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었는데 마지막에 대형 상모를 돌리는 것으로 원만한 막을 내렸다. 성건촌의 이 농악무 무용은 아성구를 대표하여 9 월말 할빈시에서 진행하는 조선족로인무용대회에 참가한다.

바늘꿰고 달리기, 담뱃불 붙이기, 공나르기, 병사리 낚고 달리기, 사람찾기, 릴레이 등 우리가 어렸을때 보고 했던 추억의 오락운동들이 하나하나 펼쳐졌다.



오락경기가 진행하는 동안 운동장은 시종 시글벅적였으며 여거저기서 고함소리, 웃음소리, 음악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모두들 오랜만에 모인터라 주름진 얼굴이 펴지도록 환하게 웃는다. 대회주최측에서 푸짐한 상품들을 준비하였기에 참가자 전원에게 선물이 차례져 보는이들이 마음을 즐겁게 하였다.

경기항목은 거의 점심에 가서야 끝을 맺을수가 있었다. 대회는 마지막에 성건촌 진학봉 서기의 페회사를 계기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아스하강변에 자리잡은 천년고도 아성에서 펼쳐진 우리민족 로인들의 운동회, 건강하고 활기찬 로인들의 모습에서 끈끈한 정을 다져가는 아성 조선족사회의 더욱 밝은 앞날을 기대해본다. /박영만 기자



제 19차 아시아경기대회 중국 항주시에서 개막

제 19 회 아시안게임이 23 일 저녁 절강성 항주시에서 성대히 개막되였다. 국가주석 습근평이 개막식에 참석하여 아시안게임 개막을 선포했다.

채기, 정설상 및 아시아주 각지에서 온 지도자와 귀빈 등이 개막식에 참석했다.

밤의 장막 아래 전당강 강변에 위치한 항주올림픽체육센터 경기장은 화려한 등불로 빛났다. 거대한 련꽃처럼 생긴 이 건물은 아시안게임 성화가 중국에서 세번째로 점화되는 것을 견증했다.

개막식에 앞서 절강 각지에서 온 대중들은 지역특색이 짙은 문예공연을 선보여 현장의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었다.

19 시 58 분, <평화—운명공동체>의 음악 속에서 습근평과 부인 팽려원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장 직무대행 란디르 싱,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토마스 바흐 등과 함께 주석대에 올라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장내에는 오래동안 열렬한 박수소리가 울렸다.

9 월 23 일은 마침 우리 나라 음력 24 절기중의 '추분'이다. 20 시경, 19 개 '수옥종(水玉琮)'이 울리는 격앙된 북소리와 함께 <수윤추휘(水润秋辉)> 공연이 시작되였다. 경기장 중앙의 초읽기 수자에 따라 관중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지면에는 옥종, 옥조, 신휘 등의 흔적과 고대 도시 유적지가 하나씩 떠올라 록색에서 금색까지 봄갈이와 가을 수확의 자연 궤적을 보여주었고 량저(良渚) 문명의 빛과 황금 풍년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장내에는 산 좋고 물 좋은 웅장한 광경이 펼쳐지고 붉은 비단이 펼쳐졌다. <사랑하노라 중국이여>의 애틋한 선률에 맞춰 8 명의 의장병이 굳건한 발걸음을 내디디며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수호하면서 장내에 입장했다. 이어 모두가 기립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를 높이 제창했다. 오성붉은기는 서서히 떠올라 바람에 나붓기였다.

20 시 09 분, 선수 입장식이 시작되였다. 경쾌한 음악 <우리의 아시아> 속에서 45 개 나라와 지역의 체육대표단이 잇달아 입장해 관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조국을 노래하네>의 격앙된 선률 속에서 개최국인 중국대표단이 마지막으로 입장하자 습근평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장내에는 희열의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다. 중국대표단은 총 1,329 명, 이중 886 명이 출전해 이번 대회 38 개 종목, 407 개 세부 종목에 출전한다.

항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주석이며 절강성 성장인 왕호는 축사에서 조직위원회와 6,500 만

절강인민을 대표하여 아시아 각 나라, 지역에서 온 운동건아들에게 가장 열렬한 환영을 표하고 그들이 좋은 성적을 내고 꿈을 이루며 우정을 증진하고 행복을 얻기를 기원했으며 아름다운 항주아시안게임 려정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항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주석이며 중국올림픽위원회 주석인 고지단은 축사에서 습근평주석과 중국 정부의 따뜻한 배려와 굳센 령도하에 멋진 아시안게임 축제가 곧 시작되는바 우리 모두 올림픽정신을 고양하고 아시아 체육의 신기록을 세우며 아시아 운명공동체의 참신한 그림을 그리는 데 힘을 모을 것을 호소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회장 직무대행 란디르 싱은 축사에서 중국 정부, 중국올림픽위원회, 절강성정부, 항주시정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항주 시민 및 준비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항주아시안게임 준비사업이 아주 훌륭하다고 찬상하며 항주아시안게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21 시 16 분, 개막식은 격동의 순간을 맞이했다. 국가주석 습근평이 항주 제 19 회 아시안게임 개막을 선포하자 순식간에 장내가 들끓었고 '디지털 꽃불'이 현란하게 피여났으며 박수갈채가 끊이지 않았다.

중국 8 명의 우수 운동선수와 코치가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기발을 들고 입장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노래와 함께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기발이 천천히 게양되여 오성붉은기와 함께 높이 휘날렸다.

선수 정사유와 손영사, 심판원 양중민과 고가기가 각기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와 심판원을 대표하여 선서를 했다.

조명이 점점 어두워지고 대형 스크린에서 <항주에서의 만남>이라는 짧은 영상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항주아시안게임 휘장은 시공간을 넘어 부동한 세대 사람들 사이에서 전달되며 열정적인 초대를 전 세계에 보냈다.

문예공연 <격동하는 아시아>의 막이 올랐고 상중하 3 부로 나뉘여 펼쳐졌다. 상편 '국풍아운(国风雅韵)'에서 국풍소년은 땅에 그림을 그리



고 먹을 밟으며 춤을 추었으며 송나라 옷차림의 녀자들은 배 우에 서서 천천히 움직이였고 등불이 곳곳을 밝혀주었으며 립체영상으로 구축된 공신교는 대운하 우로 뛰여올라 전당의 번화함과 강남의 운치있는 웅장한 광경을 보여주었다. 중편 '물결치는 전당강'에서 공중을 선회하는 무용수는 조류와 함께 춤을 추고 조류를 이끄는 이가 돛을 타고 조류에 합류하고 마스코트 '강남억'이 물을 뚫고 나와 펄쩍펄쩍 뛰며 력동적인 운동의 물결을 불러일으켰다. 하편 '손잡고 동행'에서는 '백로 요정'이 별바다를 누비였고 은은한 노래소리와 청아한 월극의 노래와 함께 수백명의 대학생들이 빛나는 금계를 들고 길게 뻗은 '금계의 강'을 밝혔으며 아시아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적인 건축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각기 아름답고 조화로운 아시아 화폭을 이루었다. 흥미진진한 공연은 현장의 관중을 깊이 감동시켰다.

21 시 53 분, 주성화 점화식이 시작되였다. 량저 고대 도시 유적에서 채집한 아시안게임 성화는 9 월 8 일부터 절강성 각지에서 전달되여 최종 항주 올림픽체육센터 경기장에 도착했다.

경기장내에서 엽시문, 번진동, 서몽도, 석지용, 리령위, 왕순 등 6 명의 성화 봉송주자가 성화를 높이 들고 이어달렸고 전 장내는 열렬한 박수소리가 울려퍼졌다. 동시에 현장의 대형 스크린 속에는 1 억명을 넘는 디지털 성화봉송 주자들로 구성된 '디지털 성화봉송 주자'가 홰불을 높이 들고 달렸다. '물결치는 전당강' 주성화탑이 서서히 열렸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주자인 왕순과 '디지털 성화봉송 주자'가 함께 '물결치는 전당강' 주성화탑에 점화했고 아시안게임 성화가 활활 타올랐다.

"우리는 같은 집을 가지고 있다. 마음의 화합이 사랑을 더한다." "억만개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한마디로 응집되였다. 우리는 아시아에 살고 있다."… 항주 아시안게임 주제가 <사랑과 함께>로 경기장 전체가 기쁨의 도가니로 변했다.

캄보디아 국왕 시하모니,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와 부인 아스마, 쿠웨이트 왕세자 미샬, 네팔 총리 푸슈파, 동티모르 총리 사나나, 한국 총리 한덕수, 말레이시아 하원 의장 조하리와 부인 노라이니 녀사를 비롯해 브루나이 술탄 대표 수프리 친왕, 카타르의 에미르 대표 조안 친왕, 요르단 친왕 파이살, 타이 공주 시리완왈리 등 왕실 대표가 국제 귀빈의 신분으로 개막식에 참석했다.

왕의, 리간걸, 하립봉, 왕소홍, 심이금이 개막식에 참가했다.

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 리가초, 오문특별행정구 행정장관 하일성, 중국국민당 전임 주석 홍수주가 개막식에 참가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관계자들도 개막식에 참가했다. 신화통신

중국 선주사 소유 선박 2억 4천GT 돌파, 총톤수 세계 최대



지난 7일 강소성 련운항 컨테이너부두에서 정박 준비 중인 화물선을 드론으로 내려다봤다. (사진/신화통신)

중국이 총톤수(GT) 기준 세계 최대 선주국이 됐다. 12 일 열린 '2023 북외탄(北外灘) 국제 선박수송 포럼' 브리핑에 따르면 중국 선주사가 소유한 선박 규모는 2 억 4920 만 GT 를 기록했다.

해운업은 중국의 약 95%에 달하는 대외무역 운송을 담당하며 수입 식품·에너지·자원 등 중점 물자의 운송과 국제•국내 물류 공급사슬의 안정적 운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항구의 화물 물동량은 156 억 8500 만 t(톤), 컨테이너 물동량은 2 억 9600 만 TEU 로 집계됐다.

고해운(高海雲) 중국 교통운수부 2 급 순시원은 중국 항구의 화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수년 련속 세계 1 위를 차지했고 화물•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10 위 안에 드는 항구 중 중국의 항구가 각각 8 곳, 7 곳이라고 밝혔다. 내륙수로의 화물량과 선박 통행 거리도 세계 1 위를 기록했다. 장강 간선은 수년 련속 세계에서 가장 분주한 내륙수로이자 운송량이 가장 많은 황금 수로가 됐다.

왕위인(王為人) 상해시 정부 부비서장은 국제 해운업의 교류•협력 강화, 해운업의 고품질•지속 가능한 발전, 해운업의 글로벌 무역•인문 교류 교량•허브 역할 확대를 위해 교통운수부와 상해시 인민정부는 오는 22 일부터 24 일까지 상해에서 '2023 북외탄 국제 선박수송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





동북아박람회, 해양건설을 대상한 길림성 개방협력의 신고지

최근 몇년 동안 비록 바다와 가깝지만 바다와 접하지 않는 길림성은 해양 개방을 다그쳐왔다. 장춘에서 열린 제 14 회 중국—동북아박람회에서 각국의 바이어들은 길림의 해양경제건설이 가져온 새로운 기회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훈춘시는 길림성 동부의 두만강 입해구 부근에 위치해 있지만 바다와 가까우면서도 바다와 접하지 않아 '주머니밑(口袋底)'으로 불리는 변경의 작은 도시였다. 그러나 장훈고속도로, 장훈도시간 철도가 개통되고 중로 훈마철도가 운영을 회복함에 따라 훈춘이 항구를 빌어 바다로 나가는 전략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였다.

매일 아침, 훈춘통상구의 국문이 열리면 신선한 킹크랩, 눈게를 가득 실은 화물차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변경의 작은 도시로 들어온다. '일대일로'가 북쪽으로 개방하는 중요한 절점도시로서 훈춘의 해산물 수출입무역은 특히 활발하다.

최근 몇년 동안 훈춘시는 해산물무역을 절개로 해양경제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내륙 사고를 타파하고 '바다를 통해 강해지려고' 도모하고 있다.

"통상구를 나가면 항구이고 바로 바다입니다. 전날 밤에 잡은 킹크랩은 다음 날 바로 이곳으로 운반되여오고 다시 전국 각지로 운송됩니다." 훈춘국제협력시범구 수산공업단지에서 해산물을 경영하는 상인 왕금동은 이렇게 말했다. 길림훈춘호시무역수입상품착지가공기지에 있는 훈춘로희식품유한회사의 가공작업장에서 로동자들은 한창 각종 해산물을 분리, 가공, 포장하느라 바삐 돌아치고 있다. 이런 예비료리들은 바로 각지로 운송되는데 소비자들은 간단한 료리를 거쳐 신선한 해산물 식사를 할 수 있다.

훈춘로희식품유한공사의 책임자 리정은 "훈춘은 해산물 자원이 풍부하고 가공산업 토대가 탄탄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곳의 우세를 정확히 보았고 앞으로 산업사슬을 확장할 것입니다."

훈춘종합보세구에는 생활용품, 복장, 조명기구, 전자제품을 가득 실은 대형화물차들이 천천히 들어왔는데 그들은 머지않아 유럽시장으로 발송된다. 훈춘동북아다국경전자상거래산업단지에는 수입된 식품, 일화, 특색 수공예품등 상품이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다.

최근 몇년 동안 길림성은 훈춘이 "바다를 빌려' 국내의 녕파, 상해, 청도 등지까지의 국내무역 대외운송 항로를 개설하여 중국 동북지역과 경진기,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를 련결하는 중요한 소통협력 통로로 되였다.

제 3 회 동북아 해양 발전협력 포럼은 제 14 회 중국—동북아박람회의 중요한 행사이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와 학자들은 해양을 대상으로 길림성이 개방협력의 신고지를 건설하는 데 조력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흑룡강성사회과학원 동북아전략연구원의 수석전문가이며 연구원인 대지강은 해양경제를 확장하면 길림성의 동북아지역 협력의 합류점 확대를 추진하며 근해성이 대외개방의 새로운 최전방을 구축하고 북향개방의 신고지를 구축하며 동북아경제무역 협력의 중심중추를 구축하도록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단대학 일대일로및글로벌거버넌스연구원의 상무부원장 황인위는 동북아 해양경제 협력은 관련 국가들이 넓은 분야, 깊은 층차, 높은 수준, 전방위적인 무역협력 구도를 형성하도록 추진할 수 있으며 우리 나라와 동북아지역의 무역협력 심화, 해양복지 증진, 푸른 공간 공유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신화사



길림성, 운전시험 조선어학습문제집 출범

운전시험의 서비스품질이 새로운 단계에 오르도록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소수민족군중들이 교통지식을 더욱 쉽게 장악하고 운전면허증을 더욱 빨리 취득하며 더욱 안전하게 교통출행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국의 조사연구와 론증 및 사업지도 아래 연변지대는 목표지향, 문제지향, 결과지향을 견지하면서 연변조선족자치주 소수민족집거지의 실제 정황과 결부하여 조선족 군중들의 운전면허시험과정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정확히 찾아내 운전자리론시험 조선어학습문제집을 혁신적으로 출범하여 조선어버전의 운전시험 리론양성 보조도구를 제공함으로써 현지 군중들의 호평을 받았다.

길림성 동부에 위치한 연변주는 총인구가 201.5 만명인데 그중 조선족이 71.6 만명으로 전주 총인구의 35.5%를 차지하고 전국 조선족 총인구의 42%를 차지한다. 연변주는 우리 나라에서 유일한 조선족자치주와 최대 조선족집거지이다. 한동안 조선어리론학습문제집이 부족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참가한 조선족학원들이 효과적으로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할 수 없어 시험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주었는데 조선어리론학습문제집 연구개발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국은 이를 고도로 중시하고 적극 응답하여 조선어버전 운전면허시험 리론양성서비스도구 연구개발을 년간 중점혁신 편민서비스조치에 포함시켜 중요한 일정에 올려두고 추진했다.

3 개월간의 연구개발과 최적화를 거쳐 운전자리론시험 조선어학습문제집이 이미 6 월 30 일 각종 앱스토어에 출시되였는데 군중들이 자주적으로 다운로드하여 학습할 수 있어 운전면허시험을 치르는 조선족 학생들의 많은 찬사를 받았다. 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국은 과학기술응용을 끊임없이 강화하고 조선어학습문제집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여 운전면허시험의 서비스품질을 확실하게 높이고 조선족수험생들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광범한 조선족군중들의 생명안전보장을 위해 봉사할 것이다. 래원: 인민넷



国家移民管理局发布新版外国人永久居留身份证

来源：法治日报-法治网

国家移民管理局 9 月 15 日在京召开新闻发布会，宣布将于今年 12 月 1 日起正式签发启用新版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永久居留身份证（以下简称“永居证”），同时发布新版永居证式样。新版永居证启用后，现版永居证在有效期内仍可继续使用，持证人可根据个人需要，适时申请换发新版永居证。

永居证是国家移民管理局对符合条件的外国人批准其在境内永久居留后，为其签发的法定身份证件。该证作为个人身份证件可单独使用，持证人可在住宿登记、购买车（船、机）票等需要证明个人身份的场合作为合法凭证，无须再出示其外国护照。

新版永居证在保持现版基本式样的基础上，新加入了体现国家标识的五星元素，优化美化版式布局，采用更为先进的防伪技术，改进提升了证件信息存储和应用管理服务手段。新版永居证升级技术、增强功能，新证启用后，持证人可通过互联网平台线上办理交通出行、生活消费、金融等私人事务，将进一步便利持证人在境内工作、学习、生活。

据国家移民管理局相关负责人介绍，启用新版永居证，是服务保障国家高水平对外开放，提升外国人管理服务信息化水平的实际举措，有利于提升移民管理服务的质量效率，更好服务海外人才来华工作、学习、生活，贯彻落实好人才强国战略。下一步，国家移民管理局将会同有关部门加快推进各相关行业信息系统、设施设备的匹配性升级改造，拓展应用范围，提升体验满意度，全面顺利实现改版永居证的功能目标。

중국 미 두 군수업체에 제재 실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모녕은 15 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록히드 마틴회사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시 자회사가 주요 청부업체의 자격으로 8 월 24 일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에 직접 참여하고 노스롭 그루먼회사가 수차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에 참여한 데 대해 <중화인민공화국반외국제재법>에 근거하여 중국은 이 두 미국 군수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표했다.

모녕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중국의 단호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중국 대만지역에 무기를 제공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세개 련합공보의 규정을 심각히 위반했으며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준칙을 심각히 위배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리익에 심각한 손상을 끼쳤다면서 대만무장이라는 잘못되고 위험한 길에서 갈수록 멀리 나아가고 있다고 표했다.

모녕 대변인은 국가주권과 령토완정을 수호하려는 중국의 결심은 확고부동하다면서 미국이 즉각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대만과의 군사결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의 유력하고 단호한 반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표했다. 래원: 연변일보

신판 외국인 영주신분증 곧 가동!

국가이민관리국은 9 월 15 일 북경에서 기자회견을 소집해 올해 12 월 1 일부터 신판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영주신분증(이하 '영주증'으로 략칭)을 공식적으로 발급하고고 신판 영주증 양식을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새로운 버전의 영주증이 활성화된 후에도 현재 버전의 영주증은 유효기간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소지자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적시에 새로운 버전의 영주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인민넷



10 월, 이런 새 규정들 우리 생활에 영향줘

가짜 국영기업, 중앙기업 등 불법행위를 예방 및 제지하고 교외양성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시력장애와 청력장애 인원이 표준어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10 월부터 이런 새 규정들이 실시되여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준다.

<량식품질안전관리방법> 10 월 1 일부터 시행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개정한 후의 <량식품질안전감독관리방법>(국가발전개혁위원회령 2023 년 제 4 호)를 공포했는데 2023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하기 시작한다.

새로 수정한 <량식품질안전관리방법>에는 총칙, 량식품질안전위험모니터링, 량식품질안전관리,



량식품질안전검사, 량식품질안전사고 처리,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칙 등 8 장, 총 50 조가 포함되였다. <방법>은 량식류통고리의 품질안전관리규정을 가일층 최적화하고 량식품질안전검사모니터링체계 건설을 강화했다. 국가량식물

자비축국은 새 형세, 새 요구와 가일층 결부하여 량식품질안전보장체계 수립, 량식표준체계 지속적 최적화, 전 과정 량식품질안전관리통제 강화, 다차원 검사모니터링체계 구축 등 4 가지 방면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여 량식품질 안전 감독관리수준을 힘써 높임으로써 국가량식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복무한다.

교외양성 감독관리 강화

<교외양성 행정처벌 잠정방법>이 10 월 15 일부터 시행되는데 교외양성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교외양성 행정처벌행위를 규범화했다. 그중에서 적용대상은 사회를 향해 만 3 세 이상의 학령전 아동, 중소학생을 모집하여 불법으로 교외양성을 전개한 자연인,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이라고 규정했다. 제멋대로 유상으로 학과류 은폐적, 변형적 양성을 전개한 경우를 명확히 하고 '온라인으로의 전환(转线上)', '지하로의 전환(转地下)', '껍데기 바꾸기(换马甲)' 등 3 가지 은폐적, 변형적 행위 및 최저보장(兜底) 조항을 렬거하고 경고 내지 10 만원 이하 벌금의 법률책임을 규정했다. 중소학교 재직교원이 함부로 유상으로 학과류 양성을 전개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더욱 엄히 처벌하는 등을 명확히 했다.

중앙 국가 기관 소속 사업단위 공무용차량 관리 강화

<중앙 국가 기관 소속 사업단위 공무용차량 관리방법(시행)>이 10 월 1 일부터 시행되여 중앙 국가 기관 소속 사업단위 공무용차량 관리를 규범화하고 강화하며 공무용차량제도개혁성과를 공고히 한다. <방법>은 보다 엄격하게 규범화하고 관리하는 요구를 부각시키고 공무용차량에 대해 대수통제, 배비표준, 배비경신절차, 사용과 처리 관리, 감독검사 등 전 과정에 대해 규정을 내렸으며 찦차, 임대용차량 등 특수사항 관리를 강화하고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변칙적으로 대수를 초과해 차량을 배치해서는 안된다는 등 12 가지 '안된다(不得)'' 관리요구 등을 명확히 했다.

기업명칭 등록관리 새 규정 시행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수정하여 출범한 <기업명칭 등록관리규정 실시방법>이 2023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국가 중대전략정책과 관련된 문자를 사용하여 대중들이 국가 출자, 정부신용 등과 관련이 있다고 오해하게 만들고',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기수단을 취해 기업명칭을 자주적으로 신청하며', '동종업계에서 일정한 영향이 있는 타인의 명칭(략칭, 상호 등 포함)과 비슷한 기업명칭을 고의적으로 신청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했다. 기업명칭에 '중국', '중화', '중앙' 등 글자를 붙이면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규정했다.

시력, 청력 장애인 표준어수준시험 참가할 수 있어

교육부, 중국장애인련합회가 련합하여 제정한 <시력과 청력 장애인 표준어수준시험 관리방법(시행)>이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시력장애와 청력장애 인원은 자신의 조건 및 실제요구에 근거해 시험에 참가할 수 있는데 시험에 참가할 때에는 유효한 신분증명과 장애증명을 소지해야 하며 부근의 편리한 곳과 자원의 원칙에 따라 성급 시험기구 또는 시험지점에서 등록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방법이 실시되는 날부터 1 년내에 각지는 시험지점을 설치하여 시험을 전개하고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시험지점 건설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영유아 조제분유제품 조제 등록관리방법> 강화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수정하여 발표한 <영유아 조제분야제품 조제 등록관리방법>이 10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영유아 조제분유제품 조제 등록관리를 강화한다. <방법>은 제품명칭중 동물성 원천 글자가 있는 경우 생유, 유분말, 유청분말 등 유단백질원천은 마땅히 전부 이 종에서 유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라벨, 설명서에는 '수입우유원천', '국외목장유래', 생태목장', '수입원료', '원생태우유원천', '무오염유원' 등 모호한 정보를 사용하면 안되며 영아와 녀성의 형상과 '인유화(人乳化)', '모유화(母乳化)' 혹은 비슷한 술어의 표술을 사용하면 안된다. 변칙적 분리포장 금지와 8 가지 등록불가 정형을 명확히 했다.

国际观察丨美日韩戴维营会晤的危险图谋

新华网

新华社北京 8 月 17 日电 （国际观察）美日韩戴维营会晤的危险图谋

新华社记者

美日韩三国领导人将于 18 日在美国马里兰州总统度假地戴维营举行会谈。据悉，此次会晤意在加强美国与日韩两个盟国的合作，涉及军事、科技、经济等多领域。三国领导人还将推动三方会晤机制化。

分析人士指出，美方积极推动此次会谈，旨在进一步拼凑与日韩两国的“小圈子”，鼓动阵营对抗，把他国战略安全作为维护美式霸权的垫脚石，恐将严重威胁亚太地区和平、稳定与繁荣。

拼凑美日韩军事同盟

此次会谈将是美日韩领导人首次在国际会议以外场合单独举行的三方会谈，是美国总统拜登自 2021 年就任后首次邀请外国首脑访问戴维营，也是 2015 年以来外国领导人首次访问戴维营。

舆论指出，美方选择在极具象征意义的戴维营举行会晤，凸显美方对此次活动的重视程度。日本和韩国都是美国的盟国，都与美国签订了共同防御条约，华盛顿希望能够加强与日韩合作，尤其是强化军事同盟关系。

美国国务卿布林肯 15 日将日韩两国称为美国在印太乃至世界范围内的“核心盟友”，称三国领导人预计将就三边合作架构“进一步制度化”的方式达成一致。

日本前外务省官员孙崎享说，美国邀请日韩领导人到戴维营会谈是想给三方会谈赋予特别意义，其核心议题除半岛问题外，将是推动三方军事及经济安保合作。美日在双边会谈中还可能就共同开发新型拦截导弹达成协议。

据韩国媒体预测，本次峰会将讨论三国合作的共同蓝图与基本原则、构建多层次合作体系、应对朝核问题的合作方案等主要议题。此外，三方将就即将召开的东盟峰会和二十国集团领导人会议等国际会议的相关议题协调立场。日本首相岸田文雄还计划在会谈中提及福岛核污染水排放问题，希望获得美韩的理解和支持。

韩国首尔传媒大学院大学客座教授权起植指出，美国推进此次会晤的主要目的是在东北亚拼凑“小圈子”，企图推动三方军事合作。

另外，美国《华尔街日报》网站报道称，三国领导人预计还将宣布每年举行跨军种联合军事演习，三国领导人之间的热线电话也在筹建中。

韩日矛盾仍难化解

分析人士指出，尽管美方紧锣密鼓地拉拢日韩，试图推动日韩关系和解，使美日韩三边关系变得更加紧密持久，但日韩之间的历史问题难以解决，现实矛盾在短期内难以弥合。

韩国国内目前已有不少声音要求韩国政府慎重推进与美日的合作。权起植说，大多数韩国人认为日本没有对其在韩国的殖民统治和战争犯罪表示道歉和反省，反而现在又强行推动核污染水排

海，让包括韩国在内的周边国家非常担心。在日本没有首先做出改变的情况下，由于美国的压迫和笼络而实现的韩日关系正常化并不是韩国民众所希望的真正的关系正常化。历史问题和“独岛”（日本称“竹岛”）主权问题等仍然是韩日关系发展过程中存在的矛盾，虽然暂时得到缓解，但并未根本解决，很可能在今后反弹，让韩日关系倒退。

4 月 25 日，在韩国首尔，民众手举标语抗议日本政府核污染水排海计划。新华社发（李相浩摄）

日本山口大学名誉教授纐缬厚认为，日韩之间的历史和经济问题，应通过有关各方的一系列讨论来解决。美国为一己之私，试图强行解决日韩两国之间的问题，日韩两国在这种情况下难以实现历史和解。

损害亚太地区和平稳定

分析人士指出，美国花大力气要将日韩两国拉拢在一起，是冷战思维作祟，在亚太地区贩卖安全焦虑，煽动对立对抗，通过搞“小圈子”和集团政治来损害他国战略安全，维护美国的全球霸权，此举是逆时代潮流而动，对地区局势有百害而无一利。亚洲国家绝不应甘心充当美国霸权的马前卒。

美国《外交》双月刊网站 15 日刊登评论文章说，美国推进美日韩三边关系的意图反映出美国应对地缘战略竞争的策略，即通过加强制度和联盟来增强美国实力。与此同时，加强三边合作有可能导致半岛紧张关系进一步升级。

东日本国际大学客座教授西园寺一晃指出，美国要把长期对立的日韩联系起来，结成所谓“东北亚同盟”，加剧日韩同其他亚洲国家对立对抗，自己坐享渔翁之利。日韩不过是美国维持其在亚洲霸权地位的棋子。不干涉他国内政，平等互惠、合作和平才是日本应该走的路。

《韩民族日报》网站发表评论文章质问，三国此前公开表示，为了加强以“核武器的使用和威胁使用”为核心的延伸威慑而进行合作，在《禁止核武器条约》生效的国际秩序下，在核武器的保护下齐心协力怎么能称之为合作？“三国不应该为了斗争、威胁而合作，而应该为了缓和紧张气氛、营造没有斗争的环境而合作。”

（参与记者：姜俏梅、陆睿、杨畅）



제 15 차 브릭스수뇌자회의 진행

제 15 차 브릭스수뇌자회의가 22 일부터 24 일까지 남아프리카의 요한네스부르그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중국과 인디아, 남아프리카, 브라질국가수반들이 참가하였으며 로씨야대통령은 화상방식으로 참가하였다.

《브릭스와 아프리카: 동반자관계를 심화시키고 서로의 장성을 촉진시키며 지속적발전을 실현하고 포용적인 다무주의를 강화하자》라는 주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브릭스의 확대문제, 브릭스성원국들사이의 경제협조문제, 무역 및 금융거래에서의 민족화페리용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사우디 아라비아, 에짚트, 아랍추장국련방, 아르헨띠나, 이란, 에티오피아를 기구에 가입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6 개 나라의 브릭스정성원국지위가 2024 년 1 월 1 일부터 발효되게 된다.

수뇌자회의의 범위내에서 브릭스성원국 국가수반들과 수십명의 아프리카나라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 지도자, 국제 및 지역기구 책임자 등이 참가한 대화회의가 진행되였다.

제 15 차 브릭스수뇌자회의 총화선언이 채택되였다. 선언은 브릭스가 경제적협조를 강화하고 유엔안보리사회를 포함한 유엔의 개혁과 세계무역기구, 국제통화기금 등의 개혁을 주장하며 대류행병을 방지하고 그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화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일으킨 것은 철두철미한 잘못

22 년 전의 9 월 11 일, 미국 정부는 '반테로'의 기발을 들고 공공연하게 아프가니스탄(아프가니스탄)전쟁을 일으켜 아프가니스탄 인민들에게 끝없는 고난을 가져다주었다. 2 년 전, 미국 사상 제일 길게 치러진 이 전쟁은 미군의 창황한 철수로 마감되였으며 아프가니스탄에 전례 없는 재난의 상처를 남겼다.

얼마 전 아프가니스탄 정치 분석인사 카리불라 사다테 선생은 본 방송국 기자의 취재를 받은 자리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일으킨 것은 철두철미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22 년전, 미국은 '반테로'의 기발을 들고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일으켰으며 군사행동을 통해 미국이 주장하는 테로리즘을 제거하며 이와 함께 아프가니스탄에 '미국식 민주'를 추진하려 했다. 20 년후, 미군은 창황하게 철퇴하고 수많은 상처만 남겨놓았다.

카리불라 사다테 선생은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시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표했다. 그는 "미국의 9.11 반테로 행동은 평화와 민주를 구실로 삼아 아프가니스탄에 커다란 재난을 가져왔습니다. 미국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고 그들의 리익만 생각합니다. 그들은 정의와 평화, 진정한 민주를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어휘는 그들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른바 '반테로'와 '민주'는 모두 미국이 사익을 추구하고 강권정치를 추진하기 위한 허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행동을 전개한 20 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의 평화 발전을 실현하

지 못했으며 오히려 대량의 민간인 인명피해를 조성했으며 아프가니스탄 경제가 침체되고 민생이 피폐해졌다고 하면서 “우리의 농업은 개선되지 못했고 경제는 굴기하지 못했으며 은행은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좋은 거리 하나도 건설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아프가니스탄인들은 부득불 고향을 등지고 이란, 파키스탄과 기타 나라로 피난했습니다. 이는 아주 나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은 마약 재배와 생산, 거래를 금지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20년 동안 3만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17만 4000명의 아프가니스탄인이 목숨을 잃었으며 약 3분의 1의 아프가니스탄인이 난민으로 전락되였다. 원래는 농목축업, 채광업을 경제의 근간으로 삼았던 아프가니스탄은 전쟁기간에 세계적으로 제일 큰 양귀비 산지로 전락되였다.

미군이 창황하게 철수한 후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잘못된 전쟁에 대가를 지불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속적인 경제제재와 자산동결로 경제와 재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 미국은 또 기회를 찾아 아프가니스탄의 발전을 저지하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경제, 사회는 난국에 빠지게 됩니다. 불행한 것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의 재산을 동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압력을 가해 아프가니스탄 인민의 재산에서 이른바 ‘9.11’ 배상을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압박성 요구입니다.”라고 표했다. 2022년 2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동결된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의 미국내 자산과 관련해 총액이 약 70억딸라에 달하는 자산을 균등하게 나누고 절반은 ‘9·11’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해 카리불라 사다테 선생은 미국의 조치는 ‘9.11’ 피해자 가족의 명의로 아프가니스탄 인민의 재산을 절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서 사다테 선생은 “미국은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전쟁에 끌어들였으며 우리 이 세대에 전쟁 리념을 주입하고 우리의 어린이들이 전쟁의 고통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평화와 민주에 힘쓰지 않고 오히려 아프가니스탄인들을 살해하고 리간질하며 적대심을 늘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아프가니스탄 인민들은 이처럼 인도주의 원조를 절박히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여러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위치도 아주 우월합니다.”라고 표하면서 미국이 ‘반테로’의 구실로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일으킨 것은 철두철미한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래원: 연변일보

리비아에서 큰물피해 확대

리비아에서 재난적인 큰물로 인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12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큰물에 의한 사망자수는 3 060명, 행방불명자수는 5 200명에 이르렀다.내무성은 실지 사망자수가 더 많을수 있다고 밝혔다.

큰물로 피해가 큰 항구도시 데르나와 련결된 도로들이 파괴되여 구조활동이 어렵게 진행되고있다고 한다.(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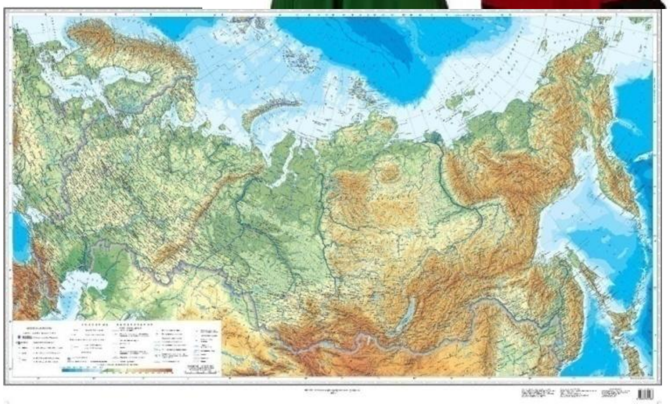
俄罗斯

俄罗斯联邦，亦称俄罗斯，首都莫斯科。国土横跨欧亚大陆，与 14 个国家接壤，总面积 1709.82 万平方千米，国界线长 60933 千米，其中，海岸线长达 38807 千米，陆界长达 14509 千米，截至 2023 年 4 月，俄罗斯总人口约为 1.46 亿人，共有 194 个民族，以俄罗斯族为主，大多信奉东正教，官方语言为俄语。

1917 年 11 月 7 日，十月革命爆发，建立世界上第一个社会主义国家政权——俄罗斯苏维埃联邦社会主义共和国。1922 年 12 月 30 日，俄罗斯联邦、外高加索联邦、乌克兰、白俄罗斯成立苏维埃社会主义共和国联盟（后扩至 15 个加盟共和国）。

十月革命胜利后，苏共领导人民开始了大规模的社会主义建设，推动了社会生产力的发展，综合国力有了很大提高，成为仅次于美国的世界第二大经济体。 苏联于 1941 年卷入二战，爆发卫国战争， 于 1945 年 4 月 30 日占领柏林，同年 5 月 8 日纳粹德国降。 与美国一同成为当时世界上最强的两个国家，被称为超级大国。1955 年，为对抗北大西洋公约组织，成立华沙条约组织，冷战格局完全形成。

在 1980 年代末，戈尔巴乔夫进行国家自由化和民主化改革，但失败。1991 年 8 月 19 日，苏联国内爆发八一九事件。12 月 25 日，戈尔巴乔夫辞去



总统职务，并将权力移交给叶利钦，苏联解体。 俄罗斯联邦成为完全独立的国家，并成为苏联的唯一继承国。1993 年 12 月 12 日，经过全民投票通过了俄罗斯独立后的第一部宪法，规定国家名称为“俄罗斯联邦”。

俄罗斯是经济大国之一，基础科学研究实力较雄厚，特别是在航天、核能、军工等尖端技术研究较领先，拥有丰富的能源及矿产资源。俄罗斯是联合国安全理事会常任理事国，外交对世界有较强影响力。

俄罗斯领土 36%在北极圈内，自北向南为北极荒漠、冻土地带、草原地带、森林冻土地带、森林地带、森林草原地带和半荒漠地带。

俄罗斯幅员辽阔，气候复杂多样，总体属于北半球温带和亚寒带的大陆性气候，依其大陆性程度的

不同，以叶尼塞河为界分为两部分，西部属温和的大陆性气候，西伯利亚属强烈的大陆性气候。

贝加尔湖是世界上蓄水量最大的淡水湖，主要河流有伏尔加河、鄂毕河、勒拿河，叶尼塞河、阿穆尔河，多为南北走向。

俄罗斯矿产资源、森林资源、水利和渔业等自然资源十分丰富，种类多，储量大，自给程度高。

森林覆盖面积 8.09 亿公顷，占国土面积的 46.6%，居世界第一位，木材蓄积量 1022 亿立方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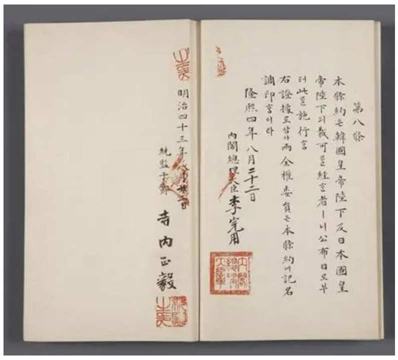
根据俄罗斯宪法，俄罗斯联邦现由 85 个平等的联邦主体组成，其中包括 22 个共和国、9 个边疆区、46 个州、3 个联邦直辖市、1 个自治州和 4 个民族自治区。

现任俄罗斯联邦总统弗拉基米尔·弗拉基米罗维奇·普京 2018 年 3 月 23 日第四次当选，5 月 7 日宣誓就职，其总统任期到 2024 年 5 月初。普京担任总统以来，复兴和提升苏联解体后的俄罗斯的国际地位，对内加强联邦政府的权力，打击经济寡头，整顿市场秩序，加强军队建设；对外努力改善国际环境，拓展外交空间，反对北约东扩。

2014 年乌克兰危机后，西方国家对俄罗斯实施了涉及政治、能源、金融、军事等领域的多轮制裁，俄罗斯开始实施反制措施。

2022 年俄乌冲突爆发后，俄美关系逐步恶化，俄罗斯与西方国家的关系呈现恶化趋势。

《한일합병조약》



1910 년 8 월에 일제가 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날조한 침략적《조약》이다.

1905 년에 《을사 5 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이를 이른바 《합법화》하기 위하여 1910 년 8 월 22 일 군사적위협과 공갈밑에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이날 일제는 《합병을 위해서는 위력이 필요》하며 《미개한 인민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보병보다 오히려 외관상 위엄이 있는 기병이 필요하다.》는 오만무례한 넉두리를 늘어놓으면서 서울에 2 626 명의 병력과 309 필의 군마를 집중시키고 군함에 의한 《위협시위》도 감행하는 계엄상태를 펴놓는 한편 조선대신들을 협박공갈하면서 8 개 조항으로 된 이 《조약》을 강압적으로 날조하였다.

일제는 이 강도적인 《조약》에서 조선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 《천황》에게 넘기며 조선을 일본에 《병합》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일제는 이 《조약》을 조작함으로써 형식상으로 존재하던 조선봉건국가를 완전히 없애버리였다. 놈들은 조선인민의 거세찬 반일투쟁앞에 겁을 먹고 《조약》을 공포하지 못하고있다가 8 월 29 일에야 이른바 《천황》의 《칙령》으로 공포하였다. 원래 불법적인 《을사 5 조약》에서 발원하였으며 군사적위협과 공갈밑에 강압적으로 날조된 《한일합병조약》은 철두철미 비법적이며 무효한것이다. 그러나 일제는 이 《조약》을 날조한 후 조선에서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우리 인민은 강도적인 이 《조약》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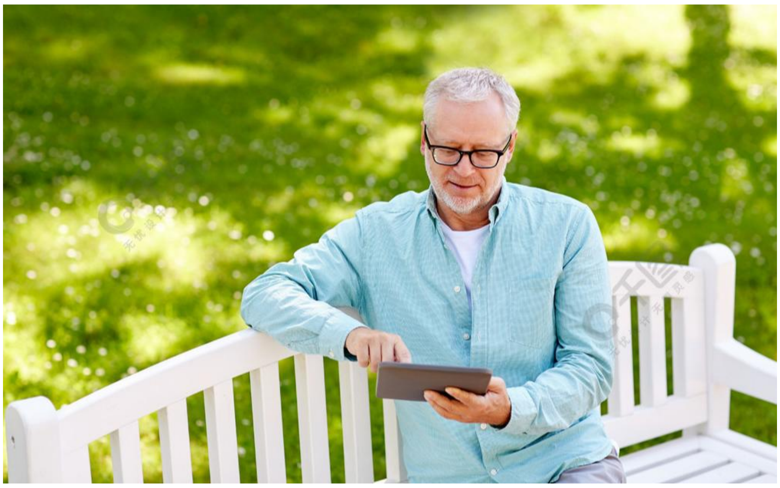
65세 이후 취미활동에 많이 참가하면 심신건강에 유익해

《자연·의학》잡지는 최근 65세 이상 군체에서 취미활동이 없는 사람에 비해 취미활동에 참여하는 로인들이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면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일정한 개선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것은 16개 국가에서 온 9만명 사람들의 취미활동참가정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발견한 것이다.

영국 런던대학 학원단체는 취미활동에 참여하는 5가지 종단적 연구에 대해 메타분석을 진행했다. 그들은 분석범위를 65세 이상 참가자로 제한하고 미국, 중국, 일본 및 일부 유럽 국가를 포함한 16개 국가의 93263명 참가자의 응답을 연구했다. 참가자의 평균 나이가 71.7세-79.9세였다. 단체는 취미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취미활동에 참가한 사람이 자가건강, 생활만족도, 쾌락수준 방면에서 더욱 높은 것으로 보고되였고 우울증상방면의 보고가 더욱 적은 것을 발견했다. 기타 요소(배우자 유무, 취업 여부와 가정수입)를 조정한 후에도 이 결과는 여전히 일치했다.

단체는 그들의 결과는 관찰에 의한 것으로서 인과관계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 발견이 부동한 나이대와 국가의 로인들의 취미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영향줄 수 있다고 인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지구최대의 랭장고-남극대륙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은 남극대륙이다.

1820 년 1 월 28 일 로씨야항해가들에 의해 알려진 남극대륙은 지구상에서 7 번째로 발견되였다고 하여 《제 7 대륙》, 사철 흰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다고 하여 《흰대륙》으로 불리우고있다.

남극대륙은 유럽보다 크고 아프리카의 절반보다 큰 거대한 땅이지만 90%가 두터운 얼음으로 뒤덮여있다.

그렇다면 북극과 남극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남극지방은 대륙 즉 땅이다.

남극대륙은 얼음이 덮여있는것으로 하여 그밑에 있는 땅을 찾아보기 힘들다. 남극에 있는 얼음은 내린 눈이 변해서 만들어진것이지만 북극의 얼음은 바다물이 얼어서 생긴것이다.

남극대륙은 두터운 얼음덩이들로 덮여있고 언제나 눈이 쌓여있기때문에 태양빛의 4 분의 3 이 반사되여 온도가 매우 낮다.

1983 년 7 월 남극대륙에 있는 《워스또크》기지에서 기상관측이래 가장 낮은 령하 89. 2℃가 기록되였다. 한편 1991 년 12 월 북극의 그린랜드의 외진 곳에 있는 한 기상관측소에서 기록된 최저기온은 령하 69. 6℃이다.

최근시기 남극대륙도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고있다.

지난해 남극대륙의 일부 지역에서 3 월에 들어와 기온이 평년보다 32~50℃ 높아졌다고 한다. 특히 동부지역의 기온은 령하 10~0℃를 기록하였다.

이런 고온기록이 남극의 여름인 1 월이 아니라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기온이 내려가는 3 월에 관측된것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에 따른 세계적인 고온현상이 영향을 미쳤을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지구최대의 랭장고인 남극에는 철, 동, 금, 은, 연, 흑연, 망간, 니켈 등 많은 광물자원이 매장되여있다.

다양한 연구활동을 위해 세계각국의 연구사들이 여기에서 살고있다.

세계최초의 시한탄 비격진천뢰

비격진천뢰는 임진조국전쟁초기에 화포기술 리장손이 만들어 리용한 신관장치가되여있는 시한탄이다.

비격진천뢰를 대완구포에 넣고 쏘면 500~600 보가량 날아가 떨어져 일정한 시간이 지나 터지게 되여있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임진조국전쟁시기인 1592 년 9 월 초순 경주성공격전투에서 처음으로 비격진천뢰가 사용되였다고 한다.경주성을

공격하기에 앞서 조선군사들은 먼저 비격진천뢰를 성안으로 발사하였다.

왜적들은 비격진천뢰가 무엇인지 몰라다가와 만져보다가 갑자기 우뢰같은 소리를 내면서 무수한 파편이 날아나는바람에 단번에 수십명이나 즉사하였다.

간담이 뒤집힌 왜적들이 당황망조할 때 우리 군사들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공격하여 일격에 경주성을 탈환하였다고 한다.


사진-대완구와 비격진천뢰

비격진천뢰는 신관장치를 한 포탄, 최초의 시한탄으로서 세계화포력사에 알려지고 있다. 비격진천뢰는 임진조국전쟁시기에 침략자 왜적을 소탕하는데서 큰 위력을 발휘하였으며 왜적들이 질겁한 화약무기의 하나였다.

수에즈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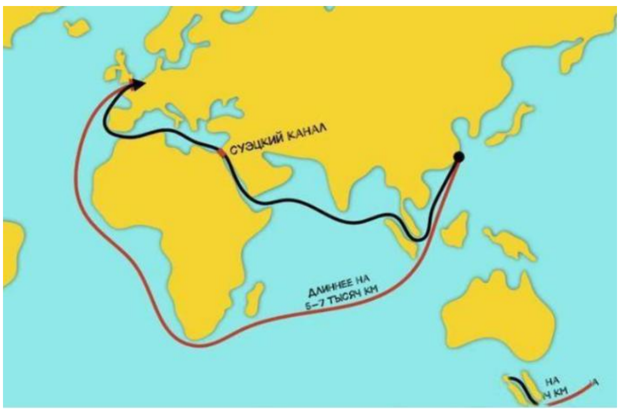
수에즈운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의 경계에 있는 수에즈지협을 파서 지중해와 홍해를 련결시킨 바다운하이다. 이 운하는 수에즈지협의 가장 낮고 좁은 사막지대와 몇개의 호수를 지난다.

운하를 지나는 배들의 생활용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운하와 평행으로 물길을 건설하였다.

수에즈운하는 대서양과 인디아양, 태평양의 항만들사이의 가장 짧은 배길로서 아프리카남단을 돌아가는 배길보다 훨씬 짧다.

운하는 유럽과 중동, 아시아, 오스트랄리아, 동부아프리카를 련결하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중심에 자리잡고있으므로 짐수송량에 있어서 세계운하들중 첫자리를 차지한다.

지난날 영국과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이 운하를 오래동안 장악하고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원유를 비롯한 많은 자원을 략탈하였다.





1956 년 7 월 에짚트는 수에즈운하를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고 운하에 대한 식민주의자들의 리권을 박탈하였다.

이렇게 되자 미영제국주의자들과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에짚트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에짚트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무력침범자들은 참패를 당하였으며 운하지대에서 쫓겨났다.

이 기간 침략자들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수에즈운하는 5 개월간 페쇄되였다가 복구가 끝난 1957 년 4 월 28 일 다시 개통되였다.

1967 년 미제가 이스라엘을 사촉하여 에짚트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강요함으로써 수에즈운하는 또다시 페쇄되게 되였고 세계경제에 수많은 손실을 주었다.

1974 년 에짚트인민들은 운하지대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몰아내고 전쟁에서 파괴된 운하를 복구확장하여 1975 년 7 월 5 일 다시 개통하였다.

한 국

한국은 리조봉건정부가 1897 년부터 1910 년사이에 부르던 우리 나라의 이름이다.

리조 26 대왕 고종이 1896 년 2 월에 조선주재로씨야공사관에 피신해 갔다가 1897 년 2 월에 돌아온후 <남에게 구속되지 않고 나라의 자주권을 세우겠다>고 자처하면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국왕을 황제로, 년호를 광무년으로 고쳐 부른데서부터 그 이름을 한국이라고 하였다.

1897 년부터 1907 년까지 고종이 황제로 있는 이 10 년간을 대한제국이라고 하고 순종왕시기인 1908 년부터 1910 년까지 한국이라 불렀으며 년호를 륭희년이라고 하였다.

한국이라는 말은 기원전 8~7 세기부터 기원초까지 있었던 고대국가의 하나였던 진국의 세개지방인 마한, 변한, 진한에서 한자를 따서 그 이름을 지은데서부터 생긴것이라고 한다. 한족이라는 말도 여기서부터 나왔다. 고려시기에도 <삼한>이라는 말은 부분적으로 써왔다.

19 세기말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가진 일, 청,로,미 등 세력은 우리 나라에 깊숙히 침입해왔다. 그러나 고종을 비롯한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은 외래침략세력을 등에 업고 정권을 유지해 보려고 책동하였다. 청일전쟁(1894-1895)을 계기로 우리 나라에서 청나라 세력이 밀려 나게 되자 청나라에 붙었던 고종과 민비일파는 새로 등장한 로씨야세력에 의거하여 저들의 통치권을 유지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제는 친로세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1895 년 8 월 20 일 조선왕궁을 습격하고 민비를 학살하는 세계력사에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해 10 월에는 미제침략자들이 또 왕궁을 습격하는 책동을 벌렸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민들뿐아니라 리조봉건정부안에서도 반일, 반미감정이 높아 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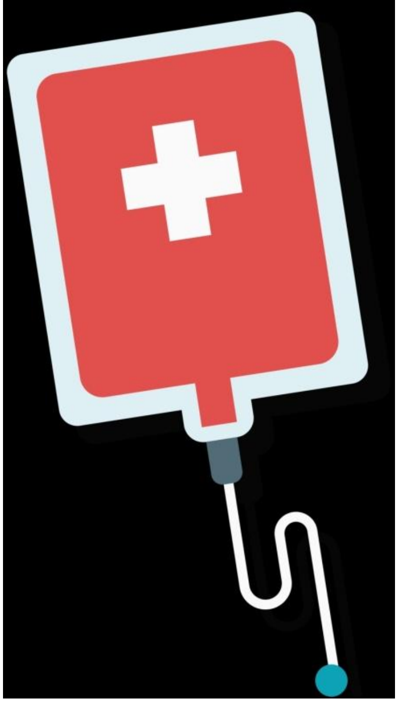
이러한 기미를 포착한 로씨야공사 웨베르는 고종을 자기들의 공사관으로 끌어 가려고 꾀하였다.

이리하여 웨베르는 인천에 와 있던 150 여명의 로씨야해병과 대포 1 문을 서울에 끌어 들이고 봉건정부안의 친로파들인 리완용,리범진, 리윤용 등을 동원하여 2 월 11 일 밤에 국왕과 왕 세자(후에 순종)를 로씨야공사관에 옮겨 앉게 하였다. 그리고는 친로파중심의 내각을 조직하게하고 여러가지 리권과 군사, 재정권도 틀어 쥐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애국적 인민들은 친로정권과 로씨야의 조선내정간섭을 반대해 나섰다. 로씨야공사관에서 덕수궁으로 돌아 온 고종은 인민들의 애국적투쟁기세와 그 압력에 못이겨 국호와 년호개칭을 비롯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였으나 사대매국정책으로 나라의 정치적위기는 더욱 심해지고 1907 년에는 고종자신이 이미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제놈들에게 독살되였다.



봉건통치배들은 나라이름을 고치고 국권을 추켜 세운다고 하였으나 사대매국행위는 극심해 지고 나라는 더우 붕괴되여 갔다.

/ 조선력사유래상식



가까운 친족 수혈, 아주 '치명적'

가족이 피를 많이 흘렸는데 혈액형이 특수하여 병원에 혈액형이 없을 경우 직계가족이 혈액형이 같아 헌혈하겠다는 것이 많다. 사실 의학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적합하지 않은바 근친수혈은 아주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 왜 근친수혈을 권장하지 않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한유: 부주임기사, 장춘시중심혈액소 수혈연구소 부소장

왜 근친수혈을 권장하지 않는가

한유: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자기 친척에게 헌혈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하지만 직계가족간 수혈은 치명적인 위험이 존재하는바 친족간 수혈은 '수혈 관련성 이식편 항숙주질환(输血相关性移植物抗宿主病)'을 유발할 수 있다. 비록 이런 병의 발병률이 아주 낮지만 사망률이 높아 환자에게 일단 거부반응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90% 이상에 달한다. 또한 가까운 가족일수록 발병률이 더 높으며 부모와 자녀는 기타 친족보다 발병률이 15배 좌 더 높다.

근친수혈 위험 아주 커

한유: '수혈 관련성 이식편 항숙주질환'의 주요증상은 수혈 일주일 후 환자의 전혈구가 감소되고 간기능이 손상되며 메스꺼움과 설사가 나타나고 피부에 큰 수포 또는 구진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친족간 항원의 류사도가 높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이 수혈하는 경우 수혈자의 면역이 결핍되거나 억제되였을 때 일반적으로 직계 친족의 혈액에서 류사한 림파세포를 인식하지 못하는데 이 때 친족의 혈액에서 림파세포는 주객이 전도되여 수혈자의 몸을 차지하기 쉽고 수혈자 자신의 림파세포를 죽여 수혈자의 면역계통과 조직기관을 파괴한다.

때문에 림상 수혈치료에서 이 질병의 발생을 피하기 위해 친족간 수혈을 권장하지 않는다.

미출산 부부간에도 남편이 안해에게 수혈하는 것을 피해야

한유: 사실상 가까운 친족끼리 수혈하는 것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출산한 부부 사이에도 함부로 수혈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는 ABO 혈액형이 같은 부부가 다른 혈액형계통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안해가 남편의 혈액을 받았다면 그 체내에 남편의 혈액형 항원에 대한 항체가 생길 수 있다. 임신하면 이런 항체는 태반을 통해 태아로 전달될 수 있으며 태아가 아버지로부터 해당 혈액형 항원을 물려받은 경우 산모의 항체에 의해 공격받아 신생아 용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때문에 미출산 부부는 이런 수혈방식을 가급적 피해야 한다. 하지만 만약 출산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혈액형이 일치하고 혈액질만 합격된다면 남편의 혈액을 안해에게 수혈할 수 있다.

주의: 긴급한 경우 AB형은 모든 혈액형을 수용할 수 있고 O형은 모든 혈액형의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지만 이형간 수혈이 너무 빠르고 너무 많으면 용혈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 수혈시 동혈형 수혈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형혈액간 수혈은 긴급한 상황에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성난 범



꽃과 새

노비로부터 명화가로 된 리상좌 (1465 ~ ?)

15세기후반기에 와서 우리 나라 화가들중 첫손가락에 꼽아야 할 사람은 리상좌라고 보아야 마땅할것이다.

그만큼 리상좌는 그림그리기에 뛰여난 재간을 보여주어 당대 풍경화와 인물화에서 명성이 높았다. 그의 자는 공우, 호는 학포였다. 집안은 대대로 량반의 집에서 머슴살이하는 가문이였다. 그가 비천한 노비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봉건국가의 전문적인 미술창작기관인 도화서의 화원으로 된것은 그림을 하도 잘 그린덕에 종의 신분에서 벗어난것으로 전해지고있다.

그가 더욱 이름을 떨치게 된것은 ≪성난 범(맹호도)≫을 그려 성공을 거둔 때부터였다고 한다.

리상좌의 그림은 노비출신의 화가가 그린것으로 하여 당시 인민들의 기백이 넘쳐흘렀고 당대의 안온한 그림들과 대조되였다.

리상좌의 작품들은 그 누구의 그림보다 현실에 대한 비판과 인민들의 항거정신이 그대로 표현되고있으며 주되는 대상을 정면에 배치하고 거기에 모든 세부들을 집중시킨 구도조직과 격동적인 형태묘사, 긴장한 분위기를 강조한 독특한 형상으로하여 리조미술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기였다.

도화서
리조시기 그림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청, 주로 왕실에서 요구되는 그림을 그렸다.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

沈阳市牡丹文化艺术培训中心



艺术的摇篮　배움의 요람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는 예술의 요람입니다.
심양시모란문화예술쎈터는 조선과 문화예술을 교류하면서 조선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오래동안 예술에 종사한 조선의 우수한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있습니다.
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에서 배운 많은 학생들이 전국예술콩클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本中心与朝鲜文化艺术部门进行长期交流。聘请了毕业于朝鲜平壤音乐大学，从事多年艺术工作的优秀教师。在朝鲜教师的 精心指导下， 本中心很多学员在全国各种文艺比赛中获得了优异成绩。

地址：沈阳市皇姑区三江街3-2
电话：024-86426512
13516032172

